東亞日報
本紙十二面
發行人 [illegible] 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新聞代 廣告料 [illegible]

對中外交의 新轉機

英國外相의 對中覺書

一

倫敦三十一日發電에依하면 英外相헨더슨氏는 駐英中國公使施肇基氏에게 覺書를 送하야 中國現在의狀勢에鑑하야 一月一日부터 治外法權을 撤廢하라하는 中國의要求에對하야 外交的交涉을開始할 [illegible] 相當한機會를 中國에與치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한다하고 英國은 一九三〇年一月一日부터 治外法權을撤廢하는것은아니나 이날부터 治外法權을撤廢하는方法及「프로그람」에對하야 協定을 遂하기爲하야 되도록速히 中國政府와交涉을 開始할 準備가잇다 하얏다한다 [illegible] 方法及順序를 [illegible] 하야 英國이 이미 原則上承認에對하야 中國과直接交涉을開始할 準備가잇다는것을 表示함으로써 再昨年十二月列國에率先하야 英國이 國民政府에對한 [illegible] 台와同法의外交이다

二

英國은 再昨年國民政府承認에 依하야 對中外交의一轉機를 지엇다 이미 對中政化策으로 轉換된以上 率先中國에 好意를 주며 有利한地位를차지함이 무엇보다 得策이아니면 안될것이다 대욱勞働黨內閣은 組閣即後對外政策의 [illegible] 에잇서 英蘇國交 [illegible] 印度自治 [illegible] 바잇섯스며 [illegible] 對埃及 [illegible] 할것이다 이것은 [illegible]

五

英國의對中態度는 [illegible] 列强에 大衝動을 주지안흘수업다 [illegible] 國民政府에 迎合할 [illegible] 資本主義米國이 [illegible] 日本은 一種의 [illegible] 英米에 [illegible] 中國은 自己勢力에 [illegible] 하는 英米兩國을 背後으로하야 [illegible] 本의 [illegible]

[illegible]

完全獨立決議案 滿場一致로通過

싼듸氏激烈한演說로大會統御

全印會議年例大會

(圍存在의危險이잇슴을警告하야 [illegible] 의「당랭叫」는 여긔에잇슬것이다)

【라호ー르三十一日發】 全印度會議는거의滿場一致로 印度自治運動의急先鋒「싼듸」氏의完全한 自治를要求하고 從來目的을達成하기까지는 [illegible] 하는것은 沮止하지안는法律을要求할 決議案을通過하야「싼듸」는 右決議案을說明하고 激越한演說을하야 當年의勢力을發揮하야 大會의空氣를統御하얏는데 그決議案에 修正案도 若干提出하얏스나 總히否決되얏더라

前者의聲明대로 獨立實行外無途

今后는어대까지爭鬪를繼續

中心人物싼듸의熱辯

【라호ー르發】 廿九日當地에開催된 全印度國民會議에서「싼듸」氏의 起草한 印度完全獨立案을 可決하얏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 當日會議席上에서 한議長「네루」「싼듸」兩氏의 演說의詳細는 如左하더라

◇네루氏(開會辭) 吾等印度國民의要求는 [illegible] 이아니다 印度의 [illegible] 及 社會的 [illegible] 目下 全部經濟의 [illegible] 印度의 [illegible] 한다는것은 [illegible] 하고 印度大衆의 [illegible] 아와 [illegible] 네루氏

余는 [illegible] 하는것이다 我等 [illegible] 의 [illegible] 一日이라도 [illegible]

싼듸氏

◇싼듸氏(右同會議委員會席上) 印度總督은 [illegible] 代表五名과會見한時에 印度에 自治領의 [illegible] 氏의報告書本年十二月二十一日外지承認치못한다고 言明하얏다 [illegible] 그러나 이에 [illegible] 의聲明에從하야 印度獨立을 [illegible] 엇지英國에 [illegible] 이아니고무엇인가? [illegible] 吾等印度國民은 [illegible] 英國의「徵罰」[illegible] 하고 [illegible] 印度에 [illegible] 余는 [illegible] 實行할맛게手段이업다 余의決議案은아즉交涉의餘地가잇다는見解를依하는者도잇스나 余는自治領의地位問題를論議하기爲하야 今後再次政府當局과 圓卓會議를開함을 斷然拒絕한다 今後어대까지爭鬪를繼續한다 그리하야 그目的을達成할時에 開催될것은 [illegible] 會議가아니면안된다 [illegible]

싼듸氏

아니면아니된다 이에對하야 [illegible] 印度는 [illegible] 보스」氏는 余의決議案에對하야 英國과의 [illegible] 이라고修正提議하얏스나 余는 [illegible] 그런고하면 余는 [illegible] 하기를希望하는 [illegible]

勞働黨內閣의 對策은如何

印度半自治制의統治法 卅一로期限滿了

一九一七年의「몬타규」宣言을基調로 一九一九年發表된 印度半自治制를規定하는 期限十個年의 印度統治法은 去卅一日로써 滿期가되얏다 其前二日의 廿九日에는 印度「라홀」에서 全印國民會議가 開催되얏다 元來全印國民會議라는 것은 印度統治法에規定된 印度中央議會가 官選議員을混合한 議會임에對하야 純然한印度人으로써 成하는議會임으로 印度人은이로써 眞正한議會라하며 每年末에開하는것으로써 各派를總羅하야 印度人私設議會인觀이잇는데 前述한바와如히 卅一日은 印度統治期限의滿了日이며 뿐만아니라 一月又는二月中「사이몬」委員會의報告가 英議會에提出될을압두고 此會는 印國民會議의形勢는 非常히重大視되는것이다 再昨年「마드라스」[illegible]

[illegible] 態度에 [illegible] 할時에는 [illegible] 昨年度에「自由獨立」을決議한것에對하야 [illegible] 期限滿了外에 完全한自治를許치안흐면 斷然納稅拒否를斷行한다고決議한것이다 [illegible] 全部國民會議委員會는 [illegible] 獨立 [illegible] 英國의政策에反對하는 [illegible] 印度人民의期待에 [illegible] 勞働黨政府가 [illegible] 印度 [illegible] 를하는것이다 [illegible] 今後如何한 [illegible] 에 [illegible] 하는 [illegible] 매우注目된다

逮捕露人釋放

【哈爾賓三十日發】 去七月十一日以來哈爾賓에서逮捕된 勞農國籍者約三千名은 中露紛爭도解決되얏슴으로 新年을압두고 三十一日五個月만에 釋放하기로되얏다 또勞農系新聞「모스치지이스」紙도 一月一日부터 發刊을許可되리라더라

포ー드會社 大擴張計劃

【데트로이트廿九日發】 自動車王「헨리•포ー드」의嗣子로 現同自動車會社의社長인「에드셀•포ー드」氏의發表에依하면 同會社는 明年度中에 國內各地의工場擴張費로 三千萬弗을計上하는外 海外의同社工場에就하야도 大擴張을斷行할計劃이라더라

英外相헨더슨氏의 中公使에手交한覺書

「一月一日은法權撤廢로向하는날」

可及的速히撤廢交涉

【倫敦卅一日發】 英國外相「헨더슨」氏는 當地駐在中國公使施肇基氏에게 覺書를遞하야 中國現在의狀態에鑑하야 一月一日부터 治外法權을撤廢하라는 中國의要求에對하야 外交的交涉을開始하라는 機會를中國에與하고 [illegible] 할것이라하며 一月一日부터 [illegible] 中國政府와 [illegible] 交涉을開始할 準備가잇다 [illegible] 英政府는 [illegible] 라고 [illegible]

佛要求는過大

佛國覺書와伊紙批評

【羅馬一日發】 當地新聞「조르날레•델리탈리아」는 倫敦海軍會議에 對한 佛國의 覺書를 批評하고 [illegible] 佛伊兩國의 [illegible] 平等 [illegible] 佛國의要求는 [illegible] 伊太利는 [illegible] 地中海沿岸各國 [illegible] 하는것이라고 [illegible]

辭令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教諭 板倉邦介
師範學校教諭 橋本健二郞
專賣局技師 稻本廣
府尹 土木事務官 木村寬藏
道警視 江頭又次郞
同 吉村秀藏
同 齋藤長治
同 佐藤貞治
[illegible]

諸植民地保護로 佛國은新艦隊組織

(佛伊均勢原則을無視한것)

海相레그氏의發表

【巴里三十一日發】 佛國海相「레그」氏는 本日附印度支那、阿弗利加西部、印度洋太平洋等의 駐屯佛國艦隊의 補助로航空隊 新艦隊의組織을發表하얏는데 此는佛國에對한 伊太利의 [illegible] 原則을 全然無視한것인데 佛國內는 [illegible] 會議에서 諸艦隊의維持를 [illegible] 하더라

白國國立銀行 割引比例引下

【부랏셀三十一日發】 白耳義國立銀行은 三十一日割引步合을 一分引下하야 三分五厘로決定하얏다

政治的保障을 條約에挿入

佛外相米大使에漏洩

【巴里一日發】 佛國外務長官「부리앙」氏는 十二月十四日駐佛米國大使에 [illegible] 條約에 [illegible] 政治的保障條項을 倫敦五國 [illegible] 會議에서 [illegible] 挿入하고싶다는 [illegible]

婦人聯盟奮起

海軍縮小問題로

【倫敦卅一日發】 倫敦軍縮會議에 [illegible] 婦人 [illegible] 國際 [illegible] 聯盟은 [illegible]

朝鮮社會運動 (2)

去歲槪跡과 今年의趨勢

李之輝

[illegible] 一方資本家側의 攻勢는 [illegible] 元山으로부터 [illegible] 各種反動團體 [illegible] 元山勞聯 [illegible] 二十八日에는 資本家側으로부터 [illegible] 元山勞聯은 [illegible] 하얏다 이러한情勢에 [illegible] 一步를讓하야 [illegible] 元山市民 [illegible] 「正當」한것 [illegible] 우리는勞聯幹部의 心理를모르는것이아니다 그러나 問題는 勞聯의要求가 「正當」한가아니한가에잇는것이아니다 그것은 元山市民에 [illegible] 하는 [illegible] 「合法」을標榜하는 勞聯幹部 [illegible] 그中에도 [illegible] 元山勞聯의 [illegible] 勞聯幹部 [illegible] 改良主義的 [illegible] 勞働者의 [illegible] 四月六日 [illegible] 勞働組合에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이것은 [illegible] 것이다

橫說竪說

[illegible] 주다고 約束한 自治를아니주니 그러면 獨立을 하겟다 하는것이 印度人의 말
□
원래 約束대로하면 一九一九年 大戰쓰레는 自治주엇서야할것, 그는못하야도 所謂改十個年의 期限인 昨三十一日에는 自治는 주어야할것
□
그도 안주니까 印度人이 英國을 信任할수업다. 가리살수업다, 各立하자 는것은 當然한 論理
□
그러치마는 實力업는 論理는 辭典中의 論理, 印度가 英國의 배지게를 떠밀기 어렵을가

謹賀新年

◇潭陽◇
潭陽面事務所 職員一同
潭陽面紙站里 鄭湧寅
潭陽郡廳職員一同
潭陽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潭陽邑內 警察署職員一同
大田面事務所 面長 李秉俊 外職員一同
武面事務所 面長 徐秉燮 外職員一同
水北面事務所 面長 高宗奎 外職員一同
月山面事務所 面長 李鵬雨 外職員一同
金城面事務所 面長 金瑋性 外職員一同
龍面事務所 面長 韓成學 外職員一同
大田面大峙里 李熙說
潭陽邑內 共信商會 主 嚴基燮
[illegible] 陽面客舍里 李炳寬
潭陽印刷所 曹喜模
[illegible]

◇鐵山◇
鐵山郡廳員一同
鐵山郡農會職員一同
鐵山郡畜產組合一同
鐵山郡森林組合一同
鐵山警察署員一同
鐵山邑內 永春館
代書業 盧元善
鐵山邑內 史秉哲
鐵山郡雲山面長 李維根
鐵山邑內 [illegible]
鐵山郡鐵山面富谷洞 萬花果園 鄭舜日
鐵山邑內 鐵山自動車部 [illegible]
鐵山邑內 鮮一洋服店
[illegible] 黃淳 [illegible]
[illegible]

元旦에도活動繼續
檢擧範圍日益擴大
示威行列事件眞相
시내각중등학교학생을망라하야 삼십여명이모이어모종단체조직

종로서고등계에서 검거중에 잇는 학생삼십여명을 망라하야 모종 중앙청년동맹(中央靑年同盟) 단결을한후 주앙청년동맹관계 소속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일대 자들로 이에관계한것이라 는바 시위운동(一大示威運動)을이르키 이일어지 검속된 사람은모다열 키려하든 사건으로 일에 이르러 네사람으로 긘긔정공근유 지난 서도 역시방학을 계속하야시내 전계문사건으로 벌서 검거가되 명마 삼청동(三淸洞)방면에서청년한 어잇섯다더라 청진동(淸進洞)방면에서 던찬 (川瀨)동을섭거행다는바이에그 자세한 내용을몰거대 광주학생 사건(光州學生事件)으로말미암 아경성시내에 격문이도는 동시 에시내와 전조선 각학교가동요 되고 일반사회 방면의각단체관 계자들까지 일어나는 그예를친 후하야 긘긔상황을 던찬외집에 서시내모 고등보통학교 학생청 년총근(鄭體)을중심으로각학교

吉野主任談 별항사건에 대하야 종로서고등계길야(吉野)주임은 압에와가티말하더라 「금번사건에 관련되어 모종 결사(結社)가튼단결이 잇는 것은 사실이다 정초가되기 때문에 아즉까지 검거는하 지못하나수일후에는상당한검 속될는지도알수업다」 고하더라

독교청년회와맛기라수처외례배 당을통하야문창과괴를파괴 하야스며 서가회천주교당(徐家匯天主敎堂)에서는 예수사진에 불을질르고 꿈란비수하루발야을 면지어 일대소동을이르키어 혜

西署도活動
洋服職工檢擧
일본인직공사지잡히어 某種事件又復發覺

지난삼십일일 시내권농동(勸農洞)에서는 그양복점직공 일본인중 촌(中村)록십오번지에서 시내각천양 곡(中谷)이라는사람도검거해다 복점(角田洋服店)직공 편의식 가역시양복한 취조를하는중이 (李鍾林)을경찰당국이검거해갓 라는데 사건의내용은 비밀에비밀 다함은 과보한바와갓거니와 이 에부쳐으로자세히알수는업스나 쳐관긔리의식은서대문경찰서고 마아무슨사상관계의 모종대사 동계와 손에서 취조를받고잇는 건이 발각된듯하다더라 동시에그날키며에동서고동계

上海 反帝同盟
敎堂을襲擊
성탄날에일대소동연출
爆藥投擲, 數名慘死

【상해특신】 상해에근거를둔반제국주의청년동맹(反帝國主義靑年同盟)은 중국, 대만, 조선등 각민족의 청년들이 조직한국제적단체로서 성탄일에 제이회대회(第二回大會)를열고 중국에 잇서 반긔독교운동(反基督敎運動)을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일어난 배당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야 ○○운동촉진하기 결의하얏든바 예긔되든바와 가티성탄일(聖誕節)에 일대시위 (示威)를하려하얏스나 조계당국 (租界當局)의엄중한경계로그만 주지되고 각대로난우어 청탄례 식을거행하는시내각처에잇는례 배당으로가서 「긔독교를타도하 라」 「긔독교는 중국침략의선봉」 이라는 표어를부치고 중국긔 독교인과 외국인에게 ...

이다
선통제가 거주하는곳은 본래 천진유신의주택이엇스나최근에 와서는 그주택이 어엔상인(商人)에게팔리게되어 매우곤난중에잇스며 남아지가산은 대개수십만원에불과하야그가산이업게되는날에는 생활곤난에 빠질형편에잇서서 무슨사업이나 하야수입을어드려고애쓰는중에하로는 천진에잇는 「니류우쿠어신문」사의긔자라고 자칭하는 독일인 려신(呂信)이 찻자와서 감언리설(甘言利說)로선통제를꾀이어합자(合資)로신문사를경영하자하얏다 선통제는그독일인을밋게되어현금이십만원을주어모든설비를하게하얏든바 그독일인은 흔적간곳이업시종적을감추고말

帝王의豪華도
而今엔春夢
【遺産廿萬圓도詐欺當해】
朝夕計도업는宣統帝

영화와부귀를 혼자누리든 일국의 쥐왕(帝王)으로나라를빼앗기고 망명의길로 쌰지어 몰경일허버리게되어가지고살든 온갓고초를 다맛보고 온갓풍상 (風霜)을다겨긋는이는과거려사에도 만히볼수잇거니와 현재에도 그 수가적지안치만과구(歐洲)에 한 국황으로 국토의비중에 쌰진이 는아마도전청선통제 (前淸宣統帝)외에는 다시엄슬것이다일쪽 중원(中原)에군림(君臨)하야사 억만인민을 다스리고 호령하든 그로서오늘날엔한몸도편안히의 탁할곳이업고 외식의 위협(威脅)이 밧게될쌔이야 뉘가 꿈에나생각 하얏스랴 아래에 긔록한애화(哀話)는최근천진(天津)으로 부터 상해에돌아온천청유신(前淸遺臣) 손효직(孫孝直)씨의 이야기

이다

합안다 이에비롯오 선통제는사긔 불당한줄알게되엇스나 그돈은 벌서 일허버리게되어가지고살든 가산을 전부 엇지 탁재하게되엇다 선통제의 가정에는 본처와첩 두 사람외에 하인한사람이잇든바 요사이 그하인이 장질부사에걸 려죽은뒤로 선통제는하인도 두 지못하고 유식울자긔손으로 맨 들어자시게까지되엇다 전날에는 유신(遺臣)를파정객(政客)들이 오락가락하며 저정부활(帝政復 活)을도모하야 녯날의 영화를

日本人調査
(간도) 길림생 정부민정청장계회(吉林省政府民政廳長) 씨는 요사이 동북정무위원회(東北政府委員會)의 훈령에준하야 관내각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호구및각종사 업의내용을조사하라는 밀령을각 현에 계발하얏다는데 간호사현 (間島四縣)은 일본측시설의 특 수지대(特殊地帶)임으로 생청 부로부터 직접조사원두명을 파 견하얏다는 동국자가(局子街) 신 에잇는중국모긔관 (中國某機關)에 두고하얏다더라

사뫼엇더라

技競運動

日本氷上選手權
十八日부터日光서

今年度全日本스케ー트選手權大會는來一月十八、九兩日間日光、淸瀧古河精銅所링에서日本스케ー트競技聯盟主催로擧行할旨를發表하얏다【東京發】

印度、와바、遲羅
諸國을請招키로
極東올림픽大會에

五月廿四日부터東京에서열릴第九回極東올림픽大會準備委員會에서는中國과比律賓은勿論、印度、와바、遲羅諸國에도請招狀을發送하기로하얏고此中兩國側에對하야規則改正의件을交涉하기로하얏다【東京發】

中等蹴球大會
明日부터阪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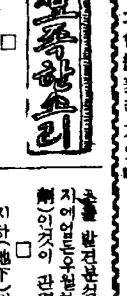
大每主催、第十二回中等蹴球大會에서朝鮮서派遣될徽新校權利拋棄로結局朝鮮은棄權하야九代表팀으로만明三日午前十時半부터甲子園에서擧行할터인바、同大會의抽籤은다음과가티決定되엇다、또한四日에京師는四日一回戰勝者에配屬中學과서우게되엇다

【第一回戰】 神戶一中對熊本二師▲【第二回戰】京都師對東京高師附屬、市岡中對函館師▲【二回戰】廣島師對富山師、愛知一師對一回戰勝者 (五日午前十時)

國際學生競技
八月獨逸서擧行

再昨年巴里에열린國際學生競技大會에日本은第三位를占한바同第二回大會는今年八月獨逸베어다르므스타트에서擧行할터인바日本學生陸上競技聯合에서는十名乃至十五名을派遣시길터이며此를機會로伯林에서日獨對抗競技를行하고저獨逸側은交涉中이라는바實現될것갓다【東京電】

運動記事三面에도잇合



진시황(秦始皇)의 명을바다 불로초(不老草)를구하려고 서복(徐福)이가해매든 산동로산(山東勞山)에서 일본인화자의눈에 그「불로초」가 발견되엇단다

□조선 발전분석한결과 지금외지에업든오원한 정력제(精力劑)이것이 관명되엇다고

□지하(地下)의진시황이이소식을들으면 죽은서복의 목이무사하지못하렷다……

□약품이 발견된것은 조흔일이지만 무수한알미운 작자가 돈만가지고 놀지도 안흘수잇다면그것도걱정거리!

□중국어야기를 한가지 떠서 불가, 육력을폐지한 국민정부에서 육력을인쇄사용하는 자에게 단연한처치를 한다고성명하얏다

□눈치빠른 일본인 본동(本籐)이란작자가 올라구나하고 무작정 육력을백혀 비밀히팔아서 이백만원의 폭리를남겻다고

□그러나 국민당 시당부의항동으로 이도홀 바로삼키지못하고 외교문제가되어 목에걸리어잇는모양

新聞紙上婚禮式
最近엔空中結婚
신문지결혼, 자전거혼례식외에 요사이에는비행긔결혼까지생겨

【新興中國스피드婚式】

【상해통신】 보수적인중국인의 혼인상사는 모다엄격한 례의의 규정을떠나지못하얏스나 오날 의중국신인물들의머리속에는이 상하게도 그례의관념조차 업 게되고모든것이급속도로근대화 (近代化)하고잇다결혼례식도최 근에 류행하는것은 신문광고결 혼(新聞廣告結婚)인데서로사랑 이잇는 남녀두사람의이름을 신 문광고란에게재하면그만결혼례 식이된다 요새남경에서는 자전 거결혼(自轉車結婚)이생겻다드 니 상해에서는 국민정부항공사

이하상야천보】 삼십일오전열 시사십오분일본참궁급행전철이 이하선의나고역 (參宮急行電鐵) 사라더라

電車와列車衝突
重輕傷十一名

이하선의 한일이잇다 하지나안홀가하야 면회하지 거 처저와도 생활비나 보태달라고 나할뿐만아니라 비록 선통제가 사이는 선통제를 방문하지도아 니하는 유신들도요 사이는 그문압헤 거마(車馬) 수가업다고한만아니라 충 움이나마 무게하얏스나 오늘날 伊賀線依那古驛)을 출발하야올 라가든제십륙호전차가상주현명 하군의나고촌자시 (三重縣名賀郡依那古村字市)부근 「카브」를 돌라돌제압호로나려오는오백상 회물렬차가 달려들어 일대 우 와한가지로 정면충돌이 되어 차는 파손되고 화물렬차의긔 관차는 탈선、화차일량(輛)은대 파손되는동시중경상자열한명을 내엇다는바그원인은역장의과실 로화물렬차를발차(發車)시키엇 기때문이라는데 단선렬차의정 면충돌은 종래에례가업는불상

在滿同胞最近統計
百卅五万四千人
農業者는五十四萬七千百餘名
商工業者는三百卅餘名에不過
東三省政府調査

【남경특신】 동삼성민정서(東三省民政署)로부터 국민정부에부낸보고에의하면 동삼성각지방의재류조선인의총호수(戶數)는 십만팔천백칠십사호에그인구(人口)는 일백삼십오만사천륙백팔십오인으로 그중농업(農業)자의총수는 오십사만칠천일백칠십오인이요 상공업(商工業)자는 겨우삼백이십여명에불과하며 그밧게 일만칠천오백인가량이무직(無職)자이라는데이를 각지방별로보면 다음과갓다더라

◇奉天省=四三五、一二五人▲農業二三、七一八人 (耕作面積二二、五四〇町步)▲商工業一一〇人▲無職六、二〇〇人

◇吉林省=五五六、三二〇人▲農業五一七、四六五人 (耕作面積二六、一五一町步)▲商工業九〇人▲無職業九、三〇〇人

◇黑龍江省=三六三、二四〇人▲農業者五、九九二人 (耕作面積二、六七九町步)▲商工業一二〇人▲無職業二、〇〇〇人

解雇에憤慨
爆破할計劃
【新潟縣下電工會議에서】
·朝鮮人職工도參加

신석현서경성군정해정 (新潟縣西頸城郡靑海町) 일본전화공업 사(日本電化工業株式會社)에서는 지난이십칠일오천한시 주식회사 조선인과 일본인직공들은한 의직공안전일먹(安田一雄)의다 것명의 조선인과 일본인직공을 해고하야동회사직공의복지 형세로 전긔해고된 직공의복직 을구하는동시에 일본로동동맹 과 조선로동총동맹 신석지부 (朝鮮勞働總同盟新潟支部)의용 그동은최후의수단으로지난삼십 일일오전한시를 긔회로동회사 의 공장을폭파시길 계획을가지 고삼십일오천한시 회의하는것을 방면에서 협의하는것을 소관사 어천(糸魚川) 경찰서에서 탐지 하고 칭천성평(稱田省平) 박광 해(朴廣海) 김종구(金宗具)던 창영(田昌英) 길천번차랑(吉川 繁次郎)등의다섯명을 체포하야 목하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 동은 무슨일인지 알지못하야다 라는 중지가왓슴으로 전긔피고 소근심하는 생각으로 당일에출 두한즉 동법원에서는 동법원서 긔과(書記課)에서축망중에예심 결정서를 동사할때에 쌰진것이 잇슴으로 이것을가일정정(加入 訂正)하게되엇다하면서 다시고 처서 배부하얏다는바 그내용인 즉먼저 동사배부하얏든 예심결 정서에는리홍직(李鴻稙)신승인 (辛承寅)은 각각죄명에 출판법 위반(保安法違反)이엇섯는데 이에보안 범위반(保安法違反)어란죄명을 첨가한것이라는바 이로써전긔 피고의 부형들은아니라 일반사 회에서는 전긔법원 서긔과의무 책임한행동을비난하기마지안는 다더라

한비행과우에 한상의 신랑신부 (國民政府航空司令) 류패천 (劉沛泉)씨는공중결혼거행차 는엇개를것고안저 상해와 공중 양는데 이것은중국에서 처음생 긴최신결혼식인바 오색이 찬란 을일주하야 전시민이갈채를하 얏다더라

配付한豫審決定書
法院에서回收訂正
해주고보생의예심결정서
◇海州法院의失態

【해주】 해주고등보통학교(海州高普校)의재적생이던형석(李 에해주서(海州署)에검거되어엄 (海州)외십삼명이 지난청월초순 州高普校)의재적생이던형석(李 (에해주서(海州署)에검거되어엄) 중한취조를 바든후 치안유지법 금음관법위반의 혐의로 즉시해 주지방법원검사국 (海州地方法 院檢事局)으로 송치되자동법원 예심계(豫審係)에회부되어이래 반개년간이나 지리하게 잇어나 려오든 해주고보생의 비밀결사 사건은 지난이십삼일에 겨우예 심이종결되는 동시에 피고십이 명은 치안유지법급 출판법위반 으로 즉시공판에회부되고리천 영(李天榮)외한명은면소되엇다 함은 본지에긔보한바어니와 동 법원에서는 지난 이십칠일에보 석중에잇는 전긔피고등에게 배 부하얏든예심결정서 (豫審決定 書)를가지고 동법원으로출두하

韓末政客의回顧談
各大臣免職手續
외부대신이단독으로도장을쐬고말아 국가대사는필경돌이킬수업게되엇다
前參政大臣韓圭卨氏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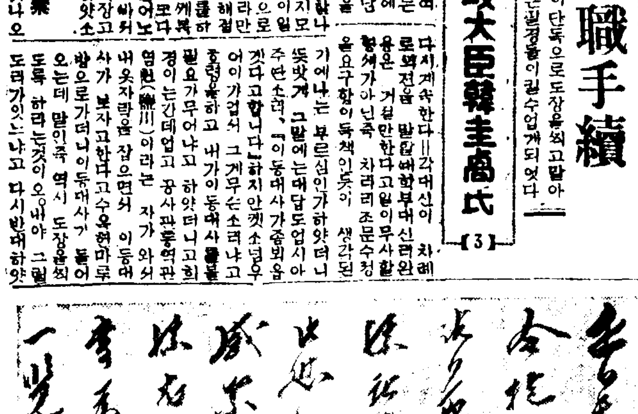
風雨卄年

여긔가지말을한 로인은 허여 흔얼굴이 상긔가되어어이업는 우숨을련발하되 설두(舌頭)에 는 노긔가동동하다 그는다시담 배하대를 벼벼밀면서 하든말을 다시계속한다=각대신이 차례 로외전을 말할때학부대신리완 용은 거절만한다고일이무사할 형세가아닌즉 차라리조문수정 을요구함이독책인듯이 생각된 다고하고 농상공부대신권중현 (權重顯)과내부대신리지용(李 址鎔)도 그럴듯이의견을 말하 야취외가 혼란하게되엇소나는 그것은절대부당하니만일 칙명 (勅命)이이러타하드라도 복종 할수업다고하얏소이와가티 취 의가 점점혼란하야지매폐하께 서는지밀로로어가시고 이동대 사가들어와서 다시동의함이가 하다고 설명하얏소 장내는 의 용가론 찬부쌍이되는듯하얏소 리하게되얏더라가 보히는데한나 간에 어엔실패가 잇슬는지모 르게된 형세임으로 나는이일 은 군주와 신하를엇지 만으로 도해결치못할주대한 일이라만 민공론에 부치어 천천히해결 함이가하니 얼마동안연긔를하 게합소서하는 외견을폐하께복 주하야 긔한을연긔하야 노코다 시힘을 다해보아일을 돌어노 흡생각을하고 회의에서 빠져 나의폐현(陛見)을 예식과장고 희경(高羲敬)에게 부탁하얏소 가에나는 부르심인가하얏더니 뜻밧게 그말에는대답도업시아 주딴소리、「이동대사가좀뵈옵 겟다고합니다」하지안켓소넌우 어이가업서 그게무슨소리냐고 호령을하고 내가이동대사를볼 필요가무어냐고 하얏더니고희 경이는간데업고 공사파통역관 염헌(廉川)이라는 자가 와서 내옷자락을 잡으면서 이동대 사가 보자고한다고수욕현마루 밧으로가더니이등대사가 들어 오는데 말인즉 역시 도장을쐬 도록 하라는것이오 내야 그럴 도리가잇느냐고 다시반대하얏

◇天下驚民公論에 靈臣오로解決策◇

그때광경이 참치반대파가 틀 이욕허잇다가 고희경이 가나오

◇空虛에不○監業 捺印을强勸이레◇



더니슬그머니 나가버리자일본 사관들이문을직히고 내여보내 지를안습되다 속아서가친것이 오허허……가치엇지오

◇各大臣免官手續 條約無效를聲明◇

이러케방새도록승강하는동안 에 수옥헌에선어엔사태가일어 낫든지알수가잇소마는 오랜한 시반쯤되어 사관이불러갓길래 나가보니 조약서에 외부대신 의도장을 씩어주엇다하오 칙 한에벼력이 오나는처청신을밟 코 상원통곡을하얏소 운들소 용이잇섯겟소 그런케미덧든박 대신이 무안한얼굴로나오기에 아사람 면못에 집어너코는다든도 장을어써 햇느냐고 호령을해지 마는 쓸데업섯지오 그러나그 빼나는국가와 국가사이의조약 이발생하는것은 소파대신이서 의하고 가하거든총리대신의동 의를어더 련서(連署)로상주하 야 재가를어더야되는것임을잘 알고잇섯슴으로 총리대신이조 인치안흔그조약은 무효라고청 경하고 즉시법부대신과탁지부 대신을켜다고는 전부면관시길 수속을하얏소

◇家中에配所生涯 流刑三年의勅命◇

그러케하지마는 그이튼날부 터는 벌서만세상이지오어전에 서의소행이 실낭(失當)하얏다 는죄목이부러 내가면관되고류 형삼년에처한다는 칙명이내려 엇소 칙명은이러스나 그배부 터두문불출하야 집안에서귀양 사리를하기로 결심한것이오보 호조약의공포는 십일월이십삼 일이엇는데 여긔대해서가부를 더말하고십지안소 그때의국적 은 얼마후에개재된덕국백림보 의긔사와 경성주재의국사신의 래도를보아 아는사람은알것이 오……하며담배시대를딱딱터 는데 벌서컴컴하든방안에식욕 광권둥이 희미하게켜지다(끗) 과자=을미이후외인과의접촉 은엄금하엇다가 특히 선생의청 치생활의 가장감격한바를 말 승해주신것을 검사하시생각하오 며 문중에그릇된것이 잇스면전 혀긔자의책임이외다 그리고전 호에게재된 원로심상훈 (沈相 薰)씨가 시골로 나려갓섯다함 은민영환(閔泳煥)씨로 정정합 니다

【사진은한규설씨최근필적】

美人選擧로
九萬圓大疑獄
상해제일미인을선거하얏는데 선거비팔만구천원이문제되어
【미쓰上海에얼킨訟訴】

【상해통신】 상해에잇는 각국 신녀청년이 상해제일미인 소위 「미스상하이」를 투표로 선거하 얏는데당선된녀성은곳상해에저 명한는백화점(百貨店)영안공사 (永安公司)총지배인의따님인데 그가팔만구천원의선거운동비로 투표자들을매수하야 당선되엇 다하야동선거경쟁에 락선된 아 각국 씨들은 크게분개하야 당선될각 아로사(郭嗣斯)양을걸어소송 을제긔하얏다「미스생해」선거회 에서는 당선되는이에게 미스샹 해라는영예(榮譽)와 미국유람 비(米國遊覽費)를주기로한바락 선된아씨들은 그선거의 무효와 재차선거를 주장하야 일반사 외충동을이르키엇더라

曆日

陽一九三〇年一月三日 金曜
陰己巳十二月(大)三日 壬子

日出 七、四八 日入 五、二六
月出 ……
滿潮(仁川) 前七、二〇 後七、三六 干潮 前一、二〇 後一、二〇

天候

(明日) 曇一時晴

京城
昨日最低 下六、九
昨年今日正午 下八、九
今日正午 二、一

◇휴지통

▲금년은경오년이니 이해의주인은 말이외다▲만군을 호령하는 장수의라는말도잇고 지존한이를 태우는말도잇고 집차로쓰는말도잇고 똥구루마를쓰는말도잇스나요컨대 직책이니귀천을가릴것업시말을 위해줍시다 ▲이런과거는 체서 죽질도맙시다 애호합시다 순종 한다고 포학히구려서는 못씁니 다그러고 말과일죽인 모든놈들 을애호합시다 ▲사람이 최후지 으면 죽어서다시 래여나올때말 도되고 소도되어 나온다는인과 론(因果論)이잇지안습니까그말 이정말이라면 말도소도 사람의 후신일는지뉘가알수잇소

謹賀新年

京城商業會議所 議員 內山寬正 京城本町二

京城鍾路二丁目 楠商店 電光三九六番

◇咸興◇

咸興 金融組合聯合會

朝鮮炭業株式會社

咸興大和町三丁目 咸興タクシー株式會社 電話長一五三二、五五五番

咸興 中華商會

朝鮮咸興大和町 津品百貨 文房具 金物雜貨 一興百貨店 電話七三四番 振替京城八二一九番 私書函四二番

朝鮮咸興 貿易商 金承友商店 電略(ショ)又八(ム)

咸南咸興邑上里一六四 合名會社義局 代表社員 高敬必

咸興 精一齒科醫院 金瓚鼠

朝鮮咸興大和町 興農園

咸興新昌里 金澤胤

咸興西里三六 榮商會 電二四〇番

朝鮮咸興大和町 咸興護謨合資會社 電話長五三八番 振替京城七八〇六番

咸興大和二丁目 津品雜貨 海運商店 普新商店

咸興運送業組合

咸興物產株式會社

咸興大和町二丁目 大登閣書店

咸興本町二丁目 京城商店 主 龍興雲

咸興本町二丁目 金銀細工 金光鎬 主 林在

咸興水利組合 幹部

咸興郡廳

朝鮮咸興 大興電氣株式會社 支店長 宍倉八二

咸興府內 公立學校職員

◇唐津◇

朝鮮咸興 電氣器具類 電線工事材料 電略(テ)又八(テン) 明商會 電話八二七番

咸興郡咸興面 咸興辯護士會

唐津郡教員會 一同

唐津郡守 李性九

唐津警察 權泰翊

唐津郡邑內 司法代書人 金東善

唐津郡邑內 司法代書人 李○○

ClibPDF - www.fastio.com

遠征으로始終한 己巳年體育界 (三)

李吉用

【前朝鮮日報】 朝鮮體育會가 創立十週年을마지 第十回全朝鮮競技大會를本社後援밑에 六月十三日부터앞으로三日間京城運動場에서열엇는데 多年懸案이든全日式으로도 이大會에서野球와庭球밋陸上競技를行하얏다 野球部에는

【小學團】 惠化公普、竹添公普、仁川永化、校洞公普、舟橋公普、渼洞公普、孝悌公普

【中學團】 中央高普、徽文高普、培材高普

【靑年團】 全培材團、徽東團

競技는小學團부터擧行되엇는데 三日間大會를通하야 小學團에는孝悌公普가、中學團에는徽文高普、靑年團에는全培材가優勝하얏다 (例외의戰績은省略)

□ 먼저에도말한것과같이 우리野球界의幾小한位置를 이번에는바라小神大將의 因果로因하야 이는바라小神大將의因果를……에서悲觀되엇스니 이제그經過를簡略히述하려한다

問題는中央高普와培材高普간 八로中央決勝戰에서不戰一勝한徽文軍이 徽文高普의에서 지금말하려는不評判을받엇다고 비롯하는것이나 그實은徵兆이엇다고 (以下 [illegible])

六月十五日京城球場에서 雨後의第三日間 大會第三日間의 徽文對培材의決勝戰은 一時卅四分(球)、金壽永(投)金東善、洪淳哲、徽文先攻으로開始되엇는데 徽文軍一回初에四球로出하야 打者李慶煥이 [illegible]

第六回末에培材는敵失에一點을주어서 한點을리ー드한채로 七八兩回亦是無風波엇시 最後의九回初에一點을뷔진徽文軍은 六番打者洪淳哲부터 이엇스니 그어모이기려고한들 반듯이得點할自信잇는打順이엇다 아니나다를가 洪淳哲은三振을하얏고 [illegible]

後 宋基宇四球로나아가文忠模의遊三安打에二進하고 二三에各進하고 金日培左飛 二死後 吳鋼煥四球로滿壘되엇다 여긔서打者는張貴男이엇스니 同軍의得點할機會는여긔잇섯고 一般의興味도또그러하얏스나 張君의遊飛로저우한點을得하야 一對一同點으로五六兩回는平凡하지낫다

◆兒童의野球

그러나彼等은 [illegible] 元小者의엔트는로던길생한개에넘우도거칫한池君은三本間에서 挾殺되고말엇다 三回末에培材一死 [illegible]

□ 野球의審判不服抗議에서 [illegible] 徽文과徽新은 [illegible] 中央高普에모여 [illegible] 이大會를前後하야 一般의 [illegible]

이리하야 池君의二壘에던짐 [illegible] 野球界와秋季리ー그戰 [illegible]

日本人側으로는 野球界가全 [illegible] 朝鮮野球界의不振한現狀을 [illegible] 第五回倶樂部野球聯盟戰은 九月十六、七日兩日間 京城球場에서 [illegible] 第二回兒童野球大會가잇슬뿐이엇는 十月五日부터四日間 [illegible]

이해의庭球界는 例年에依하야열리는朝鮮體育會의大會와朝鮮庭球協會의 選手權大會가열렷고 市內中等學校庭球聯盟戰이 春秋로擧行되엇스며 倶樂部庭球聯盟戰이開催되엇는외에 [illegible]

× 庭球는四月廿九日京城運動場에서열린 京日主催의第九回女子庭球大會로서 그序幕을열엇다 [illegible]

× 五月初에는 京城市內의各銀行과官公廳의庭球團體의對抗戰 [illegible]

이會合하엿는데 [illegible] 朝鮮에서行하는各種運動競技中에 [illegible]

遠征京城實業野球리ー그戰에서優勝한殖銀軍과 여긔서二位에處한府廳軍을加하야 東京日日이主催하는 都市對抗野球戰의代表를選拔할 朝鮮實業野球決勝리ー그戰은 七月初에行하야 同八日에쓰친바 京城府廳이三戰三勝하야 優勝하얏다 그런데이代表팀이日本에遠征하게된것을 府尹의不承認으로한동안紛糾를일으키다가 畢竟은京城軍이라는名目으로遠征하얏다

大朝主催의中等學校野球朝鮮豫選은 今年부터南北兩區로分하야 京城에서北部豫選을、大邱에서南部豫選을擧行하얏는데 南區에서는 大邱商業이、北區에서는 平壤中學이各勝하야그決勝戰을 八月三日京城에서行한바 五A對零으로平中이優勝하얏다 이北區豫選에培材가出戰하야平中에게二對一로敗하얏다

□ 十七對七로敗하얏다 文은自校球場으로마커가지고 二로培材가이겻스며 이튼날還 勝一敗의後 大邱商業을京城에 第一回戰에는九對八로勝하고 第二回戰에는五對一로敗하야 一 [illegible]

技競運動

阪神驛傳競走 征遠軍正養 七日夜出發할터

關大主催第六回中等學校大阪神戶往復(卅六哩)驛傳競走는來十二日大阪每日社前을出發할터인바、이에參加校는廿七校이오昨年同競走에優勝한養正高普陸上競技部는來七日午後九時五分車로京城을出發할터이다

大阪=一部商工、四條畷中、桃山中、京阪商、八尾中、堺中中外 兵庫=柏原中、明石中、報德商 和歌山中、同商 伊都中 △神商、岡山關中、高知安藝中、京都市一商、尼崎市中、第一神港、岸和田中、奈良五條中 同農、姫路商、大垣商、香川善誠中、鹿兒島一商、養正高普

中等蹴球大會 各代表全部決定

大每主催、第十二回中等學校蹴球大會는來三日부터甲子園에서擧行、아式部의十區代表는朝鮮의未定을除하고全部決定되엇고 라式部八팀도決定되엇다

【아式】 神戶一中(兵庫)京都師(京都)市岡中(大阪紀和)廣島師(中、四國)熊本二師 (九州)愛知一師(東海)附屬中(東京) 函館商(東北北海)富山師(北陸)平高交涉中(朝鮮滿洲)

라式代表팀 同大會에出場할라式代表校는다음과가티決定되엇다

秋田工(東北、北海)、慶應普通部(關東)、同志社中(京都)、天理中(大阪、奈良)、神戶二中(中、四國)、福岡中(九州)、京城師範(朝鮮)奉天中學(滿洲)

海外短信

◇東西兩大蹴球復活 그동안中止中이든바 今年에限하야暑休中에인터칼레이지 蹴球로써우선復活하기로되엇다

◇航空스포ー쓰開始 日本航空局에서는 今春부터스포ー쓰用輕飛行機를 만들어實現할터이며 遞信省航空局에서도E現在操縱士規則에 스포ー쓰操縱者의新規則設定을 할터이라고

◇스키ー練習中凍死 東京帝大選手 太田健三은廿六日八方溫泉附近에서 練習하다가길을일어山中에서凍死【長野電】

謹賀新年

◇論山◇

論山勞動組合

論山本町 釜山旅館

論山旭町 朝鮮料理 東洋館 主 李圭重 電話四三番

藝妓 李桃花 羅鳳仙 金竹葉 韓蓮花 李玉

洪淳大 電話七〇番

論山夜學校

論山旭町 勞働組合指定 中興理髮館

論山本町 滿洲栗類外米肥料商 李錫仁商店 電話二七番

論山旭町 米穀 受托 大東商會 主 朴鍾夏 電話六六番

湖南線論山驛前 張永自働車部 姜永植 宋敬憲

論山本町 論山麯子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尹吉重 電話三一番

私立永化女學校 職員一同

論山邑 高元 柳濟 申千 扈均 閔珍 李翰 在守 庚淳 淳格

論山郡城東面開蔡里 盧奉植

論山郡城東面開蔡里 張柄曄

論山本町 李啓赫 電話二三番

◇嶺美◇

平安北道博川郡 三嘉水利組合職員一同

京義線嶺美驛前 大檢山株式會社 専属取扱 嶺美大檢洞貨物自動車運輸 英昌運送店 店主 鄭英鎭 電略〇エイ(マルエイ)

京義線嶺美驛前 秦川、靑山、大倉、大楡洞、昌城 大寧江上流與地行貨物迅速取扱 嶺美合同運送店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 白米製造 委托賣買 平安精米所支店 本店 平壤府陸路里 徐用淳 金昌憲

京義線嶺美驛前 洋品一式化粧品和洋雜貨 ミシン油石油特約店 東亞商店 主 李大淳 安炳賢

京義線嶺美驛前 各種時計 寫眞機及 附屬一式印章彫刻 光鮮堂時計店 主 林光承 電略コウ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委托賣買 牛皮物商 嶺美商會 主 金致元 金允道 張道心 出張所

京義線嶺美驛浦口 船主人及土地改良業 海陸商店 主 金允承

京義線嶺美驛前 米穀雜穀 玄米業 崔仁得

論山郡城堂里 裵一煥

論山旭町 徐丙周

論山本町 論山美髮館 主 田德天

論山本町 徐基喆

論山旭町 朝鮮料理 旭日館 主 尹相□

總コム靴專門販賣商 李鳳九商店

平安北道博川郡嘉南面長 金相有

京義線嶺美驛前 各穀貿易委托 貨物運送取扱 振替京城一六三六〇 文應七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衣服製造販賣 金鉉三

京義線嶺美驛前 洋服裁縫 子供服 京城□□□ 主 金光奎

博川郡嘉南面嶺美學院 吳日 金□ 張 [illegible]

嘉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博川郡西面 金秉伯

博川郡青龍面 面長 吳鎬胤

博川郡東面 面長 朴正夏

博川郡嘉南面 宋基用

京義線嶺美驛前 貿易商 金乃賢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 三益商店 尹□□

京義線嶺美驛前 印刷各種 和洋紙商 太宗印刷所 振替京城一七五六一番 電話嶺美第六號 長伊金

京義線嶺美驛前 米穀貿易 玄米製造 委托業 義信商會 吳金張 大鵬 三英 電略ギ又ヒギシン

京義線嶺美驛前 全大同運送店 主任 金秉則 私書函嶺美第二號

京義線嶺美驛前 農具肥料 穀物貿易 木材販賣 中央公司 主 劉基炳

京義線嶺美驛前 嶺美醫院 醫師 方承國

京義線嶺美驛前 昭和自動車商會 全洪麟 (本部泰川邑內)

嶺美金融組合 理事 姜愉融

文具雜貨合菜商會 李文部

莫大小及土地建物賣買 金秉昌

◇成川◇

成川金融組合 職員一同

成川邑內 東元洋服店 主 朴洪觀

成川邑內 應天醫院 醫師 李泰奎

成川警察署長外 職員一同

成川面職員一同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 玄米製造 嶺美公司 金泰善

嶺美 金□□

京義線嶺美驛前 日用雜貨商 金琮成 振替京城一一八五九番

京義線嶺美驛前 穀物木材 貿易委托 三星商會 金洛淳 金秉杓

京義線嶺美驛前 壽長醫院 院長 李東英

京義線嶺美驛前 穀物貿易木材委托玄米製造 又新合 鄭基柱 尹乾夏

京義線燒酒製造場 金永濤

成川煙草耕作組合

成川産業組合 理事 崔中吾一

平川公賣專賣支局 成川出張所

成川郡廳

成立普通學校 同農業補習學校 職員一同

成川邑內 飯□ 食堂 タルマ

成川郡成所長 山下金次郎

文藝

文學朝鮮은어대로(三)
—文藝運動에對한管見—
金驥近

三、無產文學運動의功過(二)

그充分한論究는勿論容易한일이아님을아는나는 여기선 한마디의말로論에ㅁ치고말을지모르나 實에對한無產文學運動의「文學의本質論的過誤」와「朝鮮文學的過誤」의두갈래로서생각해보고저한다

文學의本質的問題에對한 그들의認識와曲解와誤斷은實로原則的인問題로부터技術的인問題에니르기까지無數하다고할것이다 나는지금「文藝性」이라고할는지「文學의限界性」이라고할는지 이와가튼問題에서發端하야論議를展行코자하거니와勿論이問題의問題는一九二五、六年頃前後의文壇的論議에서問題된것임에지안타 더구나「文學의限界性」에關한問題는나의所信에依하면 一九二五、六年代文壇的論爭의核心이오 根幹이아니엇는가고생각된다 그러고問題는結局解決이라기보다도繼續되고말앗든것이다 그우에이問題의本解決은나가서여괴■■하는또는이에서派生되는 許多한問題들은當時에이울엇든것이며 理論鬪爭의美名下에서無數한矛盾한論議가反覆되엇든것이다 나는이에서이와가튼問題야말로새로이提出되어 討究되어 明確히淸算을짓지안호면안될것을切實히늣기는바이다 더구나無產文學의새로운길을硏究하야는—

正誤 左揭「一九二〇年代의文學活動」云云으로부터「今日的見地와同時에接續에서開拓될것이아님으로」까지의六十行은本稿第一回와第二回의사이에서漏落된것이올기여기에揭載하고作者와讀者의深謝을바랍니다—編者

一九二〇年代의文學活動의소體的展開에잇서서 우리는그곳에 許多한觀念의跳梁 主張의亂舞 晦澁한普遍과錯雜한色彩의存在를認識한다 그러나그모든存在는歷史의過程에서 그■正한生長을爲하야얼마나한貢獻가잇섯든가 모든主張은어떠케提出되어 現實에잇서어떠한任務를遂行하고 滿足하고말엇든가 建設文學十年努力의總成果는무엇이며 十年의苦悶은果然우리文學의位置에얼마나한移動을줄수잇섯든가 소베—트露西亞의新興文學 갓가히日本의新文學이걸어온길 經驗한苦悶은決코그처럼不純하고無內容한것이아니엇다 그들은뵈이지안는한길을向하야머리를모핫스며 비록나타낫다할지라도는一沫의存在이엇슬지라도生長에合致하는必然한歷史的任務를다하든것이다

우리의文學은嚴實히苦悶한다 지금그것은 지긋지긋한陣痛期에서呻吟하고잇는것이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曙光을바라고나아가는우리에게조금도安心할餘裕를못주는것이다 이意外로조■하고變的인苦悶은 決코우리에게光明을가저오는다리가못되는것이다

우리는이에서우리의文學運動의本質에對한再認識과根本的是正이업서서는안될것이다 萬若우리가곳新文學樹立의로의努力을拋棄한다면몰으거니와 그것이不能한事實이限에서 우리는무엇보다인저우리의文學으로하야금 이不純한苦悶에서건지지안호면안될것이다幸이苦悶되로의解決하야만 將來文學運動의로의推進이아니면안될것이다

나는지금 이苦悶期를一九二〇年代의朝鮮文藝運動에잇서두主流를形成하고 지금에잇서는 完全히 新文學의到達할수잇는 두갈래의結論으로서思惟되는 無產階級的文學과및新派民族主義的文學主張 또는그곳에關聯해서提出되는 若干의問題에關하야 一種의吟味와檢討를試하는데서 以上의나의所說을敷衍하는同時에將來로의 우리의文學的努力에對하야 一二의意見을 提出하려고하는것이다 그보다도그가운데서探索 發見하려고한다 우리의 明日로의길은 決코今日的現實의 忘却拋棄에서開拓될것이아님으로。

무엇보다도 感銘잇는作品을(三)
金岸曙

五

나는 어데까지가 색르文藝의境界이며 어데까지가고로文藝의領土인지 그것을알수가업습니다 文藝가推移해가는그時代의反映이라하면 그時代와가티呼吸하고 그時代와가티나아가는作家로는 언제든지自己의눈에띄운바또는맘에깁히感動된바를 어떠한功利的意識에拘束밧지아니하고 그대로 表現해노흐면 그것이作品이오 또는 그作品에는 가튼時代의사람에게는 感銘될바가 잇는줄압니다

이러한곳에 무슨프로니색르니하는境界線이잇슬것이지아니합니다 이것은나의淺見이되어 비웃음을바들일인지는모르거니와 何如間作品으로보드라도 색르派의조흔作이프로派에도 자리보이고 프로派의조흔作이 亦是색르派에게도조케보이는것을보니 그境界線이란 어떠한것인지알수가업습니다 시어떠한功利的意識에 盲目되어 업는境界線을 일부러만들어노흔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 업지아니합니다

主義라는偶像을崇拜하는것도 조흔일인지는 모르겟습니다마는 그때문에 돌이어自己의 作者가 아니여서는 作者로의밟가쉽은抵路로 들어가기쉽은것이외다 그러한作者의作品은 墮落하기쉽어 이러한例외作者들은 우리는 文藝史上에서 만히볼수잇습니다

언제든지 自由롭은心境에서 作品에 功利的意識을 담지아니하는者의作品이라야 讀者에게 깁흔感銘을주고 뜻하지안튼示唆를 줄수잇습니다 結局우리가文藝品에서要求하는것은 感銘에서생기는暗示밧게업습니다 그러고 이暗示야말로 人生生活의全部의向上이외다

—一九二九、一二、二四—

◇貫齋 李道榮氏筆

史上의로만쓰 大良院君(七)
李殷相

高麗篇

종(奴僕)은강조아버지의편지를 집행이속에 다감추어집고 씨근덕거리며 주야를쉬지안코 발수레보담도 더빨리달려 왕조잇는곳에 이를어서는 그로인해과갈(氣渴)이되어 강조앞에 집행이만 던저올리고 그대로죽어버렷다 강조는 그종을 불상히너기는한편 집행이속을뒤저 아버지가보내는편지를 차저내니 거긔에는—

「왕이이미 빈천(賓天)하시어 간흉한자들이 일을꾸미니 군병을일으키어 국난(國難)을 막힐지라」

하고쓰이어잇섯다

강조는 그편지를읽고 곳일어서 한초각이 급하다하고 부사(副使)로잇는 리부시랑 리현운(吏部侍郞李鉉雲)을파 밋갑군(甲軍)오천명을 거느리고 나섯다

길이 평주(平州)에이를어

「왕이아즉 승하하시지는안핫소이다」

하는말을듯고 놀라서 자세히사실해보니 과연왕은 승하하시지안핫다 그리하야 강조는크게 상긔(上氣)가되어 얼굴빛을 붉히고 고개를드리우고 어쩌할줄을 몰랏다

이일을본 여러장군들은 다가티 한뜻으로 강조를향하야

『이미 큰군사를일으키어온길이니……』

『그렇소 일이컨다는건 ■가합니다』

하고 말하얏다 강조도문득생각하니 이미나선길이오 또더조흔왕재가 게신곳에잇고

「그럼별이오」

하며 다시 과운을어더 일어섯다

목종이 황보후의를보내어 대량원군을 마저오게하는줄은 대궐속에잇는 신하들도 모르는일이거든 더구나 멀리가잇든 한개의무장 강조쯤이야 알길이만무하얏다

그리하야 그일을모르는강조는 자긔뜻으로하야 또 분사감찰(分司監察)로잇는 김응인(金應仁)에게명을주어신혈사에가서 대량원군을 마자오게하얏다

그러고 또한편으로는 왕에게 먼저 상주하되

『지금상께서 병으로계시매간당들이 다투어규유하고 또유행간(庾行簡)등을 기울게미드시어 그상벌이 분지못하옴으로이에대량원군을마저들여만심을패링케하고저하옵는바올의에 그일을보시면 행여 성정(聖情)에 놀라실까하와미리상주하오니 감히청하옵건댄 룡흥귀법사(龍興歸法寺)로출어하시옵소서 간당을소탕한뒤에다시마저올이겟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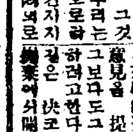
하얏다 이상주를보시고 왕은 란식하시엇다

『나도이미뜻한바어니와 이상주는무삼일인고! 아! 세상일이란 다이러하구나!』

하시고 왕은스스로 쓸쓸한눈물을흘리시엇다 (계속)

(正誤) 本欄 第四回는第五回로、第五回는第六回로고치시옵

雅俗三四



◇文豪도—데氏特赦 巴里通報에依하면 佛國의文豪이고王黨派의領袖인레옹、도—데氏는一九二七年脫獄以來 白耳義에亡命中이드니이번에뉴—매룩大統領이그를特赦하얏습으로二個年만에 歸國하게되엇다 特赦의理由는도—데氏의화가로有爲한人材를오래 不遇의몸으로外國에 放浪케할것이아니라는것이다

文壇消息

▲朝鮮詩壇續刊 그간休刊中에엇든詩歌雜誌朝鮮詩壇은그經營을社友制로하야新年號부터續刊키로되어方今印刷中

獨逸劇壇의巨星 하웁트만研究(11)
曺喜淳

이때에金髮의少女가藥草를뜯으러山에서와서「하인릿히」에게藥을먹이고그의눈에「키쓰」하얏슴에「하인릿히」는完全히恢復되엇다 그러고「하인릿히」는「라우텐델라인」의美에完全히征服되어 그의妻子와世間을버리고山에올라왓다 에서그는다시鐘을맨들어太陽神의殿堂에걸고萬人의■■이생기게되엇다 그러고 또自己의闕入을 반가히녀이지안는魔物들이 妨害를한다 그는밤에「라우텐델라인」과술을먹으면서 달구경을하고잇섯슬지음에 멀리서 斷腸의哀愁를띄운 鐘소리가 들려온다 이鐘소리는그의妻가 悲哀의結果 投身自殺되엇다

「하인릿히」는이쌔야 깨닷게되어 自己의그릇됨을後悔하고 良心의苛責에견되지못하야 올며살든少女를 뿌리치고村으로도라간다 그러나「하인릿히」에게 버림바든少女는 絶望落膽의極 自暴自棄格으로 눈물며옥고 自己를戀慕하든물(水)의精「니켈만」(Nickermann)과마음업는結婚을하고 우물안으로들어가버린다 「하인릿히」는村에도라가기는햇스나 이제는그는村里사람들에게 異端者沒情者라는이름으로 돌이어迫害를맛고 다시山으로避해왓다 그는 進退兩難으로 自殺로써全部를解決할수밧게업섯다

그러나 最後에한번만「라우텐델라인」을보고십헛는그는「니켈만」의魔術에依하야 三杯의술(酒)을마신後 그의美의象徵인「라우텐델라인」을맛나고 少女의接吻과祝福가운데에죽게되엇다

東亞文壇 ◇學藝部考選◇

빈손으로새해를 경배들이네
李大容

스물네해 살면서
일운것업시
빈손으로 새해를
마지하얏네

빈손으로 새해를
경배들이고
빈손으로 이겨레의
명목을비네

지난해 못차즌것
이해안에는
손에쥐고 가게해
주소서 비나

一年間創作界(五)
金八峯

이外에도篇에잇서서는 먼저말한바와가티 旣成文壇이優勢를占하고잇는것은事實이나 그質에잇서서旣成作家의作品보다優越한無產系의作品은 一二에그치지아니한다 俞鎭午氏의脚本「밀림과棗樹」과小說「五月의求職者」와李箕永氏의脚本「月姬」(一名그들의男妹)와그리고徐相浩氏의「피」等은社會的階級的觀點에서 現實을具體的으로그歷史的發展의全體性中에서把握하지못하면 그는참으로그事物을觀察한것이아니라 現實의一斷面을皆見한것에지나지아니하든까닭이다 그러하야이와가튼觀察을가지고그사람이小說을써서는 그것은社會的으로巨大한價値를獲得하지못할것이다 同時에그것은藝術的價値에잇서서도低位에屬할것이다 웨그러냐하면藝術的價値라는것은社會的價値를떠나서생각할수업스니까

이제個個의作品에對한批評으로드러가기前에 諸作品을通해서어떠한所感을말하면 旣成文壇의作品에는別로어려타할傾向이업섯다 ■■■■ 旣成作家의作品이 從來에는普通 安逸 放蕩한生活의描寫를즐거히描寫하거나 또는그리치안코 貧困한家庭이나一個人을題材로取하드라도거기에現實의냄새를가득히닷엇다느니보다는차라리「藝術」의냄새를피우기에힘써왓는데今年에그들의作品은좀더現實의냄새가난다는事實을보고 하는말일것이다 이와가튼말은얼마나淡然한表現인지몰른다 그럼으로조금더鮮明하게말하면 그들은그들이가지고오든「藝術」로부터 밧구어말하면「超階級的藝術觀의態度」로부터한발자욱社會的現實으로向하야나오는傾向이若干보인다고할수잇다(還元의 作品二篇에는이러한傾向이가장 잘나타나 ■■■) 그러나 이러한傾向이라는것도旣成作家의全部에나타난것은아니다 (金東仁氏의「太平行」은 비록完結을보이지는아니하얏스나 얼마나空想的或은神秘的냄새를풍기는作品이엇든가) 氏等은亦是지금까지도 自然主義作家이다 氏等이「프로레타리아的傾向으로 기울어지는거가튼傾向」은 그럼으로絶對로업을것이다

馬의學的考察(下)
東京 金益鎬

이제다시西方을考察컨대希伯來文學上에나타난馬에對한最初의記事는 그리古代의事實이아니오舊約士師記五章二十二節로二十八節 約書亞記十一章四節에잇는馬에對한記錄은紀元前約十三世紀頃이라고「헤—ㄴ」氏는말하얏다 또한有名한「함무라비」(Hammurabi)法典中에도畜獸에對한規定이잇서서 牛、驢、馬、羊、豚等의名稱이잇스나 馬或은此를意味하는文字가업다當時에도싸홈할뗴에 戰車를使用하얏스나 그것을끄은것은驢馬엿고「빼빌로니아」(Babylonia)의馬의記錄은 紀元前約十二世紀頃이엇는데 名詞는「山地의驢」라고불럿다 그러고約二世紀後에「이란」地方으로부터西亞細亞地方에輸入되어家畜化되며戰車에도 使用되는同時에北方히티테(Hittite)族의勢力으로因하야埃及에까지輸入되엇다 그러나埃及人의記錄을參考컨대馬를埃及에가저온것은 Hyksos族인데 이兩族의同異에對하야는別問題로하고 馬의傳來한지約六七百年後라고推定되는 히티테(Hittite)王의碑文에依하며馬의名詞를「東方의獸」라고불럿다이名詞로서도 우리는當時馬의勢力을알수잇는同時에 그傳播의徑路를 엿볼수잇다 即「山地의驢」라고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에서 부르든動物은「東方의獸」라고「히티테」族은부릇스며 支那에서는此擬或은什伐이라고이름하얏다

以上을綜合하면 馬의本源地는「이란」을中心한「스키디안」(Scythian)方面인데東으로는波斯方面으로中央亞細亞를거처서唐代의支那와印度等地에輸入되어 다시朝鮮、日本等地로퍼젓고 西로「히티테스」族의손을거처小亞細亞와「메소포타미아」에傳播되고 다시直接間接으로埃及과西歐에까지普及되엇다고볼수잇다 埃及에馬가輸入되자 그들은運搬、耕作、田獵等各方面에使用하는中 特히戰鬪에利用하야그들을壓迫하고搾取하든「히소스」族放逐戰에큰도움이되엇다 十八王朝에至하야는戰車上에서馬를놀면서 敵兵을驅逐하는光景이彫刻에나繪畵에 나타나게되엇다 就中카—르有名한「카—나크」(Karnak)殿堂大廣間의外側에잇는一百七十呎의畜豪浮彫는그의好例이다 그리하야漸次로馬의神聖을 崇拜케되엇다 舊約聖書中에도 馬의迅速함과굿셈을讚美한 句節이만히잇스며 特히『埃及에서 馬를求來한』云云한記事는 얼마나當時「이스라엘」사람들이埃及의馬를羨望한反面을엿볼수잇다 前述함과가티古代에는 馬를各方面으로使用하얏지만騎乘用으로匹히쓰게된것은 퍽後의일인듯하나 支那에잇서서도戰時에戰車를使用하얏슴은戰國策이나春秋左氏傳가튼册에서도만흔材料를차즐수잇스며더구나「軍」의象形文字가 戰車를表現하얏스며現行使用文字도「車」를包含하얏슴을보아도알것이다

以上과가티古代에잇서서 馬를使用케됨을딸하야 平時는勿論 戰時에도그迅速性을利用하야 時間을얼마쯤短縮케됨과 同時에國民의冒險心을增大케하며國際關係는나날이頻繁케되어政治上地位도一變케되엇다 그러고交通의容易敏捷은楔形文字의普及에도莫大한貢獻을하게된等、實로現代의資本主義的物質文明에對한汽車、自動車、飛行機、電信、郵便等의役割과가티古代의 封建文明에잇서서交通、耕作、運搬、戰鬪、田獵等 東西文化交通上 實로莫大한貢獻을한것이다 —(完)—

應接室

一、內容은疑問이나相談에限함
一、用紙는官製葉書로 投稿는東亞日報社學藝部應接係로
一、氏名은記名이나匿名이나各自隨意

▲讀者 二千萬生靈이死地에싸졋스니救濟할方策이如何? (落淚生)
△記者 各결(路)로한信地에!
▲讀者 市內에잇는朝鮮妓生券番番地를잇는대로敎示大望 (欲知生)
△記者 아시는妓生이잇거든그에게물어보십시오 엉거든料理店에
▲讀者 海外에居住하는同胞는얼마나됩니까(錦町R生)
△記者 通稱百萬
▲讀者 뜻이잇서도實行치못하게하고입이잇서도말치못하게하고손이잇서도쓰지못하게하니이苦痛을어쎼야올소 (惱悶生)
△記者 그苦痛을한데뭉쳐서못하게하는者의頭蓋骨을바수어버리시오
▲讀者 印度의聖哲「칸트」氏가別世하얏다는말을들엇는데眞說이오? 虛說이오? (金川칸트崇拜生)
△記者 獨逸哲學者「칸트」는죽은지已過百餘年이고 印度의「깐듸」는方今民族運動에如前히머리를쏫쏫하는中이랍되다
▲讀者 朝鮮사람은大體로起居動作에元氣가적어보이고얼굴에酷慘한빗이적어보이며日本사람은이와正反對로보이니何故 (南川研究生)
△記者 朝鮮사람과日本사람이正反對의境遇에잇는外닭
▲讀者 月給四十六圓밧는사람인데生活困難이莫甚하니아이들을안나케하려면어쩌해야조켓습니까 (平壤困難生)
△記者 그것이世界的問題입니다「產兒制限問題」方法은여러가지잇지오 去勢까지는좃기쓰스럽고 避姙法은法律에걸리고… 避姙法은신용치못하고… 하니老兄夫婦가議論해서決定하는것이第一安全、確實

謹賀新年 ◇蔚 山◇

金佐性

蔚山釀造合資會社 電話七一番 魚市場販賣所 電話二六番 大和販賣所 電話一〇八番

蔚山郡 碁服中年賀遠慮 黃德純

下廂面作괘里 金尙熙

蔚山金融組合長 蔚山面協議會員 靑任俊

蔚山面職員一同

兵營釀造合資會社

農所面職員一同

溫山方島 目島酒造合資會社

彥陽面職員一同

溫陽面職員一同

蔚山醫院 楊季根

一般印刷 活文社 蔚山本府電話二〇番

蔚山本府 保生堂 齒科醫院 宋允玉

蔚山金融組合

蔚山水利組合長 李鉉寶

蔚山邑內 支那料理 玉昇園 鶴城園

蔚山本府 綢緞布木商 源盛同長 源盛義興 豫志德

鶴城醫院 朴鳴遠

蔚山本府 李琛一 電話二五番

蔚山本府 內外雜貨 三和商會 林泰圭 電話六番

蔚山本府 蔚山印刷所 電話一八番

蔚山本府 義齒科院 李圭明

蔚山學校組合管理者 森田嘉太郎

蔚山水利組合

彥陽酒造合資會社長 彥陽自動車停留所長 金昺翰

彥陽面長 李相嗜

下廂面長 吳義相

蔚山兵營市場通 雜物商 鄭允鎔

農所釀造會社

方魚津醫師會

東面長 金斗憲

方魚津金融組合

蔚山自動車組合

釜山商業銀行 蔚山支店

蔚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蔚山驛前 蔚山面協議員 李圭正

方魚津石油商會 金基錫

釜山商業銀行 方魚津支店

方魚津 鄭■洛

溫山面漁業組合

溫山面長 黃鍾寶

溫山唐月 金昌奐酒造場

方魚津支店 職員一同

彥陽金融組合

中南面長 金孝東

彥陽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彥陽市場 李鍾滿 電五

彥陽釀造合資會社 社長 朴炫■

中南釀造■

西生釀造會社 社長 李根宇

新岩釀造所 申泰淙 李武中

西生漁業組合

가뎡부인

엄한겨울과 소아위생

첫재요점은소아의보온

京城帝大醫學部小兒科 李先根

겨울은점점깁허가다 산과 들을 꼽게물들엿든 나무닙히 하나식 들씩떨어지드니 어느듯 압산과 뒷을에 눈이가득하고 압내와뒷개에얼음이얼게되어 살을어이는듯한찬바람이 흰지를 차고도니 일로부터 가장 치운시긔를 당하게되엇습니다 천사와갓고 어린양과가튼어린분의사랑하시는자녀에게는 이때를당하야 특별히여러가지범마의침해를밧게되는 시긔입으로 다른점긔에비하야 위생상가상주의에 주의를 일층더요하는시긔인것은 누구나 다아시는것이나 이시긔의소아위생에대하야 상세한리론은 후일의다른긔회로 밀우고 다만 엄한시긔를당한 우리가반듯이 알아야할만한요점을들어보려하는데 지나지못하는것이나 미리 이점에대하야 독자여러분의량해를원하는바이올시다 엄한시긔와 소아위생을말하기전에 먼저동절과 소아사망률의 관계를 말하야둘필요가 잇습니다 우리교실에서 수년전 경성부내시칠개소의 보통학교생도의가정에 의뢰하야 그형제간사망한자와 과거의관계를 조사하야 본통계에 의하야보면 一九九호의 二六九九八인중사망자가 四五六五인으로 이것을 춘동(春冬)과 하추(夏秋)에 구별하야보면 봄과겨울에는 일세(一歲)미만이 五六●三『파센트』이며이세(二歲)미만이 六六●○『파센트』요여름과가을에는일세미만이四三●六『파센트』이세미만이三四●의『파센트』가되엇습니다 죽봄과겨울의 사망수가여름과가을의그것에비교하야 만흔것이 명요하고그주에도 이세미만아이의 룻재를보면봄겨울의 사망수가 여름가을의사망수에 약이배나되는 것을 알수가 잇습니다 봄겨울중에도 가장사망수가 만흔때는 여기말하려하는 엄한긔인데 이와가티 어린이의 생명을빼앗는 병을살펴볼지며 호흡긔병(呼吸器病)전염병(傳染病)신경계병(神經系病)등이다 그중에서도 호흡긔병이제일위를 점령하야 감긔가제일만코 이것이긔관지염(氣管枝炎)도되고폐염도되어 아이의 생명을 빼앗어가는것데 그주에도폐염의 가장 무서운시기다 그다음에는 홍역 백일해(百日咳)성홍렬(猩紅熱)디부테리아(實扶的里)장질부사(腸窒扶斯)가튼것이류행하며 신경계병으로는뇌막염(腦膜炎)등이 만히류행한다

그러함으로 엄한긔를 당한우리의소아 위생이라하는 것은별것이아니요 우에말한 여러가지의병에걸리지안이하도록힘쓰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한것은명약관화의사실임으로 말하서 일필요한것은어린이들이 감긔에걸리지안토록할것이다본시 소아는체질(體質)의변화(變化)가 어른에비하야심하고 한긔에대한 저항력이미약하야 사소한주위의변화에 말하서 즉시 감긔가들기쉬웁으로엄한긔 위생의첫재요점은 소아의보온(保溫)이다 이집에대하야먼저 우리의 주택이가옥제도를살펴보면 서양식이나 혹은절충식의주택을 사용하시는분도잇스나보통은온돌(溫突)생활임으로 방한의준비와 환긔(換氣)의설비가 불충분하야 조금 인후에는 온도가 갑작이올라가고 시간의경과에 알히 속히 차짐으로인하야이와가튼때(특별히 밤)에 감긔가들기쉬웁고 그뿐만안이다른곳과 창틈으로 들어오는바람이어린이에게 해롭을이제일크다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말과가티창틈문사이로 새여들어오는 바람을적풍(賊風)이라고한다 다시말하면 어린이의생명을 농락하는 도적과가튼바람이란말이다그럼으로 방안의 온도는항상화씨六十도내외가도록조절하야급속히변동이업도록 할것이오럽창과창사이로들어오는 바람을막기위하야 방장가튼것을 설비할이가하고 실내에화로를 노와두는경우에는 차관이나 주전자가튼것을 버치하야 항상수증긔를발산시키어 방안의 간조를예방할것이다 그러나 너머방안의공긔를밀봉하는경우에는탄산와사의축적으로 인하야 실내의공긔가 불결하야지는것이니 창이나 럽창의상부에 구멍을뚤어서 항상공긔의 류통이되도록할것이올시다

다음은 겨울철에 소아의의복(衣服)이문제가된다 가장완전히방한이되는것은 털옷이나 이것은 누구나다 입을수업는것이요 보통무명에솜을둔것이 우리의공통복이며 솜다고하야 덥어여러가지의복을 껴입히는 것은 그다지 위생에조라고는 볼수업다 그러유로말하면 몸이 어린아이의 한긔에대한 저항력을 약하게하는 페해가생기어 사소한부주의로 인하야서도 감긔가들기쉬운까닭이다 그러나넘어엷게입어도 우에말한바와 가티감긔에 걸이기가 쉬운것이다 그러함으로 어떠한정도까지 의복을입히는것이 맛당하다고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도에넘치면 몸이어해가된다는 아정에주의하야 누구나 공통성인옷지아니하게 하기위하야 두렴게입히려는 애자지정에 싫이어사랑하는자녀의 저항력이 약해지지안토록 할것이오 살에직접으닷는의복은 항상청결하게 하야피부의작용을 방해함이 업게하고 털옷은사용할때에는 즉접살우에입히지말고 속옷을 입힌우에입히는것이 올타 그러치아니하면털실의자극으로인하야 여약한피부에 여러가지 질병이생길뿐만아니라소양증(搔痒症)이생기어 어린이가 불안상태에빠지게되고 발하서 유아의발육상 장애가적지안흔것이오

◇사진설명 자동차작난에 흥겨워 우리 몸부림치는 아이라도순히 안자 머리를깍길수잇도록만든리발용 유희자동차입니다

이즐수업는일

무슨원이잇든지말하야

마굴에서돌은 성자의설교

부모일코헤매든 날이미웁기도해 (下)

대전 조정희

아달라고 애원을하얏습니다손님은 얼마를생각하드니

당신의그마음이 감잇고고맙소이다 본래무슨생각으로 이런길을밟으려왓습니까 나도역시무산자의하나이만큼 무슨가진물질이잇스려오마는 퍽급한돈멧원을가젓스니 이게라도쓸수잇거든보래쓰십시오 그러고부탁할말은 아여그러헌된설을 쓰지말고 당신눈으로보고 고제하야본후에 일생을가리할만한사람이잇거든 속히결혼하야서 려상적가정을 실현하십시오 나로서는 깁히부탁하는바입니다ㅡ』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돈잇는대로 사원을내줍니다 커는너무나고마워서 감격의눈물을 울렷습니다 어거짓만남은세상에 커러뭇호활한칭년이잇나? 속으로멧번을부르지젓습니다 동무는뷰밧게서 자초저종을 다엿듯고들어옵니다 어느정도까지자긔와친한손님의 쾌활한성격을 자랑하는듯 질투를 늣기는듯하야보입니다 손님ㅡ커의은인은『잘도러가서 나의 말대로 하라』는 한말을남기고유유이나갑니다 나는못듣고 주소성명을 몰으려고도하얏습니다마는 그는『그것을물어무엇하오』하고가

短篇小說 强盜를잡으면 【四】

김동인

버렷습니다 커다란 광채한밤에 그손님와 뒤모양이보일뿐와지트례를를엿습니다 방에들어와서 동모에게모든것을 물어보앗습니다마는 그역시청명은 몰은다고함니다 다만편지의회원이오 어느신문사에 다닌다는 막막한소리만 들엇슴니다 커는 그동목가지고 그굴혈을버서나서집에와서 결혼도하고 생활정도는 이새차나어갑니다 커의오는날 이생활은그구주가튼손님의동정으로 성립된것입니다 그러던은 어느곳에서 무슨짓을하시고계신가 커로서는 일생을두고분골쇄신이되는한이잇다하드래도이즐수업는일입니다

X

그러나집안의 욱칭한 괴운은 역시 업서지지를 안햇다

칠성이는 개나 고양이와도안좋앗다 뻐뻐로 개나 고양이가 커이들에 붙든엇에 어떠케칠성이를 건드리기라도하면 그는발을 들어차고 하얏다 그러고혼자서 집기동을 어루만지며 혹은단장을 쓸엇다 그리다가는 거마를 잡아서짜올부치고하얏다

아가씨는역시 두문불출하얏다 간간 시어머니가

『너두 양지ㅅ귀에 좀 나와보렴』

하면

『실혀!ㅡ다!』

또 큰소리한마로 이러케대답할뿐 문을 열어보라도아니하얏다

담장안의 살구옷이 피엇다그러나 옷이 질때에는 그열매를 차 한번에 다열어것다

이것은확실히 휴조엿섯다그러나 이것을 아는사람은송서방밧게는업섯다송서방밧게는외를 커다보는 사람이업섯다

송서방도 나날이 음침하여졋다 집안사람에서로 말을사괴는일조차(며츨에 한번씩이나 잇슬가)드물엇다 집안에서말소리라고는 밤중에 칠성이의글와 우는 소리밧게는 듯기가힘들엇다

어려한가운데서 송서방은모든 사랑하든 사람을 잃고 혼자남은 외로움을 몹실히 늣겻다

『아ㅡ오』

『이리온』

재빵이게대한 송서방의 사랑은날로 돌엇다

봄도 다가고 녀름이되엇다 그러나 집안의 욱칭한 괴운은 그냥이엇섯다 고양이와 개의희롱에도 이젠실증이 낫는지 로마님도다시 마루ㅅ귀에 나오는일이적엇다

어떤날 일업시 허든허든거러에 나갓든 송서방은어떤작난감옥시집에서종흘보앗다 그것은종왕을너코 쏘는 어린애의작난감으로서 그런것은 대개七색이려롱하게 채색을 하는것인대이것은 쎤언 단색이엇섯다 그것을 물그럼이 들어다보고잇든송서방은 문득 도령님을 생각하얏다 그러고 그런작난감이라도 잇스면 혹은 깃버할지도모르켓다하야 주머니를 텀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왓다

집에돌아와서보매 칠성이는 어느듯 학교에서 돌아와서기둥을 어루만지며 혼자서놀고잇섯다송서방은 고양에 가서종을한줌집어내어다가 한알너코 살구나무를 향하야 쏘앗다『덕』소리에 칠성이는 돌아보앗다그러고 송서방의손에 들은것을 한번유심히들여다본뒤에는 몸을돌아서고 말앗다

『칠성아 너이거 안가지갓?』

송서방은몹시 미안한듯이엇개를 들먹어러며 돌아서잇는칠성의압흐로그종을 내어밀엇다 칠성이는 그종을 한번어루만지보고는 다시말업시 돌아섯다

『너을싸이겨두 쏘면새러두ㅡ 새ㅣ안죽을가 나비려두 당장에 죽는단다』

그런뒤에 그는슬몃이 그종을 칠성이의 아패노흔뒤에 자긔방에돌아와서 문을바삭하고 내다보앗다

칠성이는 처음에 그것을가만히만커보앗다 그러고 사면을살핀뒤에 쏘에아모도 업는것을보고그것을 들엇다 그런뒤에송서방이노코 들어간종을 한알너허서쏘아보앗다 덕!한번 몽울흘칫한칠성이는 다시한알 너허서쏘아보앗다 또덕!

두어번 시험을하야본 칠성이는흥이 낫든지송서방의 노하둔종을주머니에 집어너흔뒤에 뚤어커리로 돌아다니며 다닥치는대로 쏘앗다 이러왓다커러갓다ㅡ그것은 근래에 업든칠성이의활발한모양이엇섯다

이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든송서방은 넘우깃버서 어쩔할줄을 몰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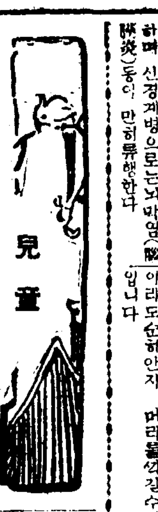
『오누 오누』

『야!』

『이리온』

그는그 커다란 손으로 쌔멍이를붓잡쥐고 노피처들엇다 쌔멍이는노피들리워서련하야 아양을부리노라고 양ㅡ양ㅡ하얏다

『돈사줄가 밧사줄가』



兒童

訓話

새해를마지하며 조선의어린이들에게 (上)

◎먼저굿건한뜻을세우라!

東京 金泰午

새해! 새해마지! 이것처럼 어린이의 생활에 깃붐과원기를주는것은 다시 업슬것입니다 새해는 누구에게든지 깃븐때이지만 훌륭한어린사람에게는 한해! 한해 새생각을가지고 열어나아가는 어린사람에게는 가장귀중한때입니다 그마음과 그생각에 가장만흔변화를 주는까닭입니다

◇

새출파형이 어조만흘의생명을실고 한가지로 새봄개밝아갈때 원누리에 새볕이옵니다 그려고 새벽닭이웁니다 깃붐에날뛰는 어린이들의 환희새커럼 조곰만괴로움이 잇드래도 못견대어서 고사발을쪽쏫고 반쪽을하여 동그케워야하겟습니다

사람은 뜻으로 살아갑니다그러나 뜻이서지(立志)못한사람은 조곰만 어려워도 못견대고 쏫고 새생명이잇는 결심과뜻을세워야하겟습니다

◇

또다시금 여러분의 장래를비하야말하면 밀가루한되에 물한 소용업습니다 우리어린이 들은 아모조록 위대하고 고상한뜻을

봄며『이제는새해여요』하는 소리며 닭소리 종소리도거룩하게 들리고 근심도 슬픔도원망도업시 깃붐에찬 새로운광휘만이원 ㅣ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럼으로사람사람들은지난날의모든슬픔과후회의눈음에서뛰어나와 이새해새아츰 새빛을마지하면서『금년에는!』하고새로운희망과 새로운뜻을 세우며 씩씩한활동을 시작합니다 새해가즐거운것도이까닭이오 귀중한것도 이까닭입니다

어제까지는 잘못하얏드라도 이새해아츰부터는새로운갑사잇고 새생명이잇는 결심과뜻을세워야하겟습니다

만번하고 또는실패하고 맙니다 그런어니라 이사람이이러면 이말이올코 커사람이커러면 커말이올아서 나종에는 아모것도얼우는것이업습니다 그럼고뜻을세우지못한사람은 세상에산다고한들 일종의『송장』이나『허수아비』에지나지못할것입니다

아!六百만의 조선의 새살림을건설할 씩씩한어린이 들이여 !우리는 이뜻깁흔 새해를마지하며 먼저굿건한뜻을 세웁시다 새해!첫아츰 새생각 새맘으로 원대한 뜻을세웁시다 권청이만 려가튼 소년소녀제군은 한번목적을정하는대로 일을수가잇고실 력을준비하는대로 성공의 문에 들어갈수가잇습니다

판든것과 갓습니다 이덩어리를 가지고는 둥굴납작한것을맨들수도 잇고 배가볼룩한송편도맨들고 가늘고 긴꺼비도만들고 뚝뚝뛰어내는 뚝덕께비도 만들수가잇습니다 그둥근덩어리를 가지고는 무엇이나마음대로할수가잇습니다

이와가티 우리소년의 장래는무엇이든지 되구싶흔대로 될수가잇고 맘먹은대로 어듸수가잇습니다 그러나뜻을세우며 비렬(卑劣)하여서는 안됩니다ㅡ나는 공부하여서재판소에서판사ㅣ지『나는하겟다』경찰서『고쓰까이』나 하겟다 서양집『뽀이』노릇이나하겟다 일본지『게죠』나 하겟다하면 이와가튼 소년이나소녀는 소용업습니다

兒童作品

풍금소리

利原 月廷

똥다라당 풍금소리
들려오지오
고개하나 넘어잇는
유치원에서
닷다라당 곱게곱게
들려오지오

X

닷다라당 풍금소리
들려오지오
아이들의 목소리에
마처가면서
짓다라당 요란하게
들려오지오

X

닷다라당 풍금소리
들려오지오
이山에도 저山에도 닷다라당
복잡하게 내귀에
들려오지오……

◇洪原◇

洪原邑 洪原醸酒場

洪原邑 洪原金融組合

私立鶴泉普通學校 校長 金殷成 校監 [illegible] 均

洪原邑來源里 洪兌得

洪原邑 三山醫院長 姜憲求

咸鏡線前津驛前 前津精米所 主 崔炳楠

洪原邑東門通 最新式眼鏡及時計貴金屬各種修繕 主 金成玉

洪原西門外 朴在淳商店

洪原西門外 司法代書所 金福鎭

洪原西門外 司法代書所 宋鼎和

咸南前津森野商店出張所 李昌炫

洪原邑南門外 金鍾鶴

洪原邑 米穀商店 姜顯默

洪原邑西門外 時計眼鏡製鋼商 朴明洙

洪原邑 中東醫師科院

洪原邑 醸造支店 朴良華

鶴泉面豊山里 姜英模

洪原邑西門外 荷車製造 楊雲珏

洪原邑西門外 荷車製造 金物鐵工 機械修繕 姜 [illegible]

洪原都前津港 仁濟局 醫生 金鳳洙

洪原都前津港 旅在所勸務 朴得龍

洪原東門通 大和商店 林准變

洪原南門外 靑林商店 主 林炳燦

洪原西門通 司法代書所 金鴻璣

洪原南門內 司法代書所 劉鳳南

洪原鶴泉面 鶴泉面長 金基協

咸南洪原邑 共誠商店 主 白東湜

咸南前津 都性洙商店 都性洙

咸南洪原 合資會社 德興商店 洪原支店

咸鏡線前津驛 大昌商店 主 崔昌 [illegible]

咸南洪原漁市場 洪原製鹽組合

咸南洪原邑 七星酒造 文昌 [illegible]

咸南洪原郡希賢面旭市 共興商店 李淡

咸南洪原郡希賢面旭市 永信商店 李滏

咸南洪原邑西門外 洪原精米所 金鳳均

洪原南門外 德昌洋服店 金德鎬

洪原西門通 泰昌商店 金甲永

洪原西門通 陽盛商店 朴陽鎬

洪原東門外 漁油明太子 池春日商店

洪原東門外 宋虎雷院

洪原邑前津港 海陸貿易商 金基俊商店

洪原邑漁市場通 長興商店 崔長昊

洪原西門外 仁壽堂 醫生 洪祖發

洪原南塘 崔氏

洪原昭川里 麻谷 華鎬

咸鏡線前津驛 鄭成

洪原西門外 洪愛堂藥房 楊文甫

洪原邑 都鎭沃商店 都晦洙

洪原邑 大盛商店 鄭相敬

洪原南門 洪明堂 主 金在澤

洪原南門外 源和商店 主 金源鎬

◇平壤◇

平壤府廳

平壤敎員 箕城券番 電話一二九番

平壤府竹典里一六 綢緞布木貿易 同源興本店 電話一二七二

平壤府港町 材木商 三友洋行 電話一二〇五番

平壤府協議員 孫壽卿

平壤府南門通二丁目八二 雲龍商店 振替九〇九八

平壤新陽里九八番 東亞石鹼合資會社 振替京城一八二二番

◇青陽◇

青陽尚武會

青陽郡青陽面正坐里 李秉文

青陽郡靑陽面場川里 卜祥圭

青陽土曜會

青陽郡化城面山亭里 宋敏會

青陽郡赤谷面美堂里 尹甲善

青陽麵子組合

青陽郡靑陽面正坐里 李相鎬

青陽邑內 青松園 李鍾弼

青陽郡化城面松月酒造場 李義載

青陽郡飛鳳面 李啓夏

青陽 主任 明濟國

青陽郡美堂 洪龍杓

青陽邑內 博文酒造場 徐相吉

◇載寧◇

載寧運輸倉庫株式會社 長電二三番

載寧邑內 載寧殖産組合 組合長 鄭續裕 理事 朴泰煥 李根燮 長電六番

載寧邑內 載寧商事株式會社 閔丙瓚 閔金權 閔丙駿 長電二〇番

載寧邑內 株式會社 載寧材木商會 閔丙德 閔大植 鄭寅皓 長電二五番

載寧邑內 西鮮電氣株式會社 長電七二番

載寧邑內 協同商會

載寧邑內 張在坤商店

載寧邑內 天生堂藥房 張鄕緒

載寧邑內 穀物商 安秉烈

載寧邑內 朴炯坤

中和製麵 [illegible]

載寧邑內 精養軒

載寧警察署長 芦立安正

載寧邑內 丸共燒酒釀造場 長電六七番

載寧邑內 崔成岳

載寧邑內 [illegible] 總館恒

載寧邑內 洋品商 中和商

載寧邑內 朝鮮料理 大同館

載寧郵便局 職員一同

載寧邑內 元友寫眞館 主 元容克

載寧邑內 安寧水利組合 長電五五番

載寧邑內 載寧商會 長電二一番

載寧郡廳 職員一同 長電五番

載寧邑內 新案特許 綿打機製造所 主 [illegible] 長電一〇九

載寧邑內 三省醫院 醫師 李潤載 長電六一番

載寧邑內 中央齒科醫院 齒科醫師 金炳鎬

載寧邑內 世光商會 主 朴致華

載寧邑內 綢緞布木商 洪基鳳

載寧邑內 綢緞布木商 姜鳳國

載寧邑內 柳屋旅館

載寧邑內 長壽齒術院 主 [illegible]

載寧邑內 申聖雨

載寧邑內 兪致祥

載寧邑內 載寧面職員一同

載寧邑內 綢緞布木 金知寶

載寧邑內 載寧公立普通學校

美花堂製菓店 主 金慶燦

載寧邑內 日新組合

載寧邑內 崔斗淳

載寧邑內 岸本商店

載寧邑內 文昌商店

載寧邑內 載寧[illegible]會

載寧邑內 穀物貿易 白萬福

載寧邑內 [illegible]

載寧邑內 [illegible]

新春文藝 (學藝部考選)

童話

귀여운복수(一) 一等 鍾德坊人

여래서지분하고 원통한 생각에 어찌할줄을몰으면서 원수를 갑느니 분푸리를 하느니하든 복동이는 누나의 이야기를듯고나자 원칭이고훈소년이라 마음속에 깁히 결심이되여두눈에 눈물까지 고엿습니다

그러허분푸리를 하리라 원수를갑흐리라하고 수남이를 미워하든생각이 스르르 업서지고 수남이 어머니와 압어누어 애쓰시는것이 눈압헤보히는듯 가래서수남이를 가엽게 녀이는생각이들엇습니다

그이튼날학교에가서 수남이는돈께가 하지이잇는지라 좀미안한듯이복동이를보고앗슴을보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자긔의잘못을남에게이야기하야망신을톡톡히주기쉬울겟다고생각하얏든모양입니다 그러나복동이는 자긔를보드니엄는의면을하고섯든수남이엽흐로갓가히가서

「애! 수남아 너의어머니병환이좀어떠시냐?」

하고볼엇습니다 그러니까 수남이는 친절히굿는복동이의 목소리를듯자마자 얼굴이 새빨아지면서

「우리어머니병환은 좀나으시다」

하고 간신히모긔소리만한 목소리로대답하얏습니다

「그것은 퍽다행한일이다이것은 그러변변치는못하다마는 우리아버지께서 다달이주시는 돈이십전식을저금해두엇든것이다 이것이 저우삼원밧게 안되는돈이지만은 네게정성것 주는것이니 이걸로 어머니께서 잡숫고십허하시는것이나 사다드려라」

하고복동이는돈 원을수남이에게내여주엇습니다 수남이는얼굴이 점점더밝에지며 머리가작구작구압흐로 숙으려지드니 참옴내아 더참을수업든지 감작이 으아! 하고 울어버렷습니다 하참만에 수남이는 눈물을씻으면서

「복동아 내가잘못하얏다 네가 일엇 애를써서 마치는산술을 내가슬며시훔처다가 내가마친것과가티 속인그죄는 무엇으로 사죄를해야 조흘지몰으겟다 나도이제부터는 마음을고처서 이후부터는 다시그런짓을 하지안흘터이니 용서해다오 네가뜻밧게 내게해서 이러케 친절히해주는것을 보니까 네주먹에가슴을몹시마즌것보다도더압흐고나 의잘못을 뉘우치는것보다도 내마음이더압흐다」

하고 사죄하기를 마지안햇습니다 그이튼날부터 수남이는 마음을고처여 아조딴사람이되고 학교를무사히졸업한뒤에는 상점의점원으로잇스면서고학하며 어머니를잘봉양하엿슬뿐아니라 복동이와수남이는나히만흔어른이되기까지 친형제와가티 사이조케잘지내갓다합니다(끗)

(一九、十二、四)

어머니를위하야(一) 二等 利原 金哲洙

옛날어떤시골 산밋조고만 오막사리에 괴호라는 열네살먹은 어린아이가 늙은 어머니한분을 모시고 쓸쓸하게 살엇습니다 그러나단한분게신 어머니조차 변변치못하야 병들어누은지 석달이 넘도록 병은낫지안코 점점심하야 가서 갓득이나 가난한집안이 더욱더 가난하게되엇습니다 괴호는 어머니께올릴 약을 어떠케하면살수잇슬가고 밤낫 생각하여보나 그러케조흔 도리는 업섯습니다 그리하야 어린가슴에 애만태우며날마다 깁흔고허한 산속에들어가 나무를비여서 지고는무거워서막을 한집흘리면서 지고나려와 장으로가지고가서 팔엇습니다 그러나 하로에한번식 비여오는나무갑스로는 그날먹을 양식됨도못되니 어머니께 올릴약은 물론살수도 업섯습니다 가난한 이두식구는이러케 괴호와 그작은엇개에 실려는얼마 안되는나무갑스로 요행요행 그날그날을 살어갑니다

괴호는 나무를팔려 장으로가면 목맛잇는 떡한개씩을 사가지고와서 어머니께 올려고올리고합니다 그런때마다 어머니는「괴호야 그건너무어라고 사돌고와는냐 나는 먹고십허지안타 용너희어라 오작배곱흐켓나 배야밥낫누어잇는것이 무에그리 배곱흐겟는냐 괴호야 너먹어라」하시며 밧지안흐시면 괴호는어머니의 여윈얼굴을 물그럼이처여다보다가는「어머니 어머니 제걱정은마세요 저는낫에장에서 죽을사먹어서 배가아직붑읍니다 어머니잡수시요 어머니가그떡을잡수서야 마음노치 그럿치안흐면 제맘은 노이지안읍니다 어머니 잡수시요」하고는 어린눈에눈물이글성글성 고임써면 어머니는 잠아목에 넘어가지안는떡을 눈물칠반식거잡수십니다

그케야괴호는안심한다는듯이 어머니것을떠나 주린배를 움켜쥐고 커틔이라고 죽멋숟식어먹고는 하로밤을 지내고지내고 합니다 어린몸으로 그힘에넘치는나무를 비노라고 얼마나곤하엿겟습니까 그래도병들어누으신 어머니의것을 떠나지안코 어린입으로 쏘군쏘군 위로의말을하노라고 애쓰고안졋는 그애처로운모냥은 참아 볼수업섯습니다 그리하다가도 그냥안존대로 쇼박쇼박 조름을의이자못하야 조은때가 잇습니다 그럴때마다 어머니는 그여윈얼굴에 눈물을흘리며 후유—하시고 깁게한숨을 쉽니다 어리고칠흘은는 괴호가 어머니를위하야그애쓰는형편이 하도가엽기때문이엇습니다 이러케불상한 이두모자는 이조고만 오막사리속에서 날들이 질겁게 사는세상을 눈물과한숨으로 살아갑니다 가을도다지나가고 백설이분분히날리는어느겨울처녁이엇습니다 아츰부터 나리는눈은쉬칭업시싸여서 질과들의 구별도몰으게만들어노핫습니다 눈은작고만나리고 날은점점 커믈어가고 오는밤만은치지안코나려기만하면 이조고만오막사리속의 괴호와모자는 눈속에 파무치고 쉬고가려하니 어머니는 어쩌면 조흘지몰랏습니다 그러하야 나그네에게「하로밤 쉬게해스면조켓사오나 나는이러케 병들어누어잇고 어린것하나이 밤도지오며 나무도비여오는데 오늘은 장에가서 아직돌아오지안엇스니 어쩌면조켓습니까」하고근심스런 말슴을햇습니다 나그내도 한참생각하다가「그러면 하는수업습니다 가다가 눈속에 슬어저 자든래도 가는수밧게업습니다」하드니 또다시눈길을터벅러벅하고 길을떠납니다 어머니는목무히 그뒷모양을 혓습니다 보시드니 눈에눈물이 고입니다 나그내를 쉬여보내스면조흘가 간은 잇섯지만 어린괴호가 독에내고생을보니어는 나그네에게 권할동섯 등멍하슴은근심하야 구내를보바키는보벗스나 이리온날에 눈감을려드는 나그내가불상하야 눈물만차고 흘렷습니다 그벼에타박라박어두운 칠을 겨어오는것은 괴호의작은모양이엿습니다 어머니는넘우도반가워서「괴호야」하시며 문맛그로나오려고합니다 괴호는「어머니 넘우나오지마서요 오작서장하시겟습니까 나무가속히 팔리지안하서 이러케는것습니다」하면서 방으로뛰어들어가 등불에켜노코사가지고온 떡을어머니께 올렷습니다 어머니는떡을 보시드니「괴호야 나그내는 오작히나 배가곱흐겟느냐」하엿습니다 어머니의 이이상한말슴을 듯고 괴호는물어보앗드니 어머니는 앗가나그내의 이약이를하시며 눈에는눈물이 고입니다 괴호는 어머니의 마음속을알어차리고곳집을나와서 그뒤를딸하차저가 눈속에헤매는 나그네를 다려다가 재가먹으라든 죽을쑤어 올렷습니다

나그내는 넘우도반갑고 고마워서 어쩔줄몰릅니다 나그내는 그날밤을자면서 괴호의어머니 병을자세히보드니「그것참안되엇습니다 그러나한가지 약이잇습니다 잉어한마리만 국을끌여잡수시면 병은곳낫습니다」하고 상당을합니다 그후에들으니그 나그내는 유명한의사엿습니다 괴호는나 그내의거레안자새시별가른눈을 더욱빗내며 그이야기를듯고잇드니 만면에 깃분빗출 가득씌우고 나그내에게 잉어는 어데잇느냐 물어보앗습니다 나

祝東亞日報社 咸北鍾城邑南門內

習字（入賞）鍾城 李瑞雨

入賞自由畫 (無順)

靜物 開城滿月町 鄭鳳吉
靜物 定州郡郭山面 金尚潤
介童이의도화 順天郡順天面 李錫琫
秋景 江華集一鳳校 俞鎭弘
시골여름 城津郡鶴東面 許順彈
林檎 安東縣下六道溝 金應桐
初冬의고개 京城於義洞公普 辛卓柱

林檎 (入賞自由畫) 安東縣 金應桐

童謠

選外佳作(續) 쇠골이의봄 金德容

一、쇠물쇠물 쇠물이
노래하면은
수양버들 늘어진
봄이옵니다

二、쇠물쇠물 쇠물이
노래하면은
실옷쉬곳 개나리
웃음웃고요

三、쇠물쇠물 쇠물이
노래불으면
노랑나비 흰나비
연습합니다

秋景 (入賞自由畫) 江華 俞鎭弘

馬의傳說

相思馬의化魂 —말은죽어생나무되고 처녀는죽어누에되어— 入賞 洪仁德

넷날,넷날도 퍽오나 오랜 넷날입니다 몃수으로부터 몃만년전인지도모릅니다 어쨋든생나무와 누에가업섯슬때입니다

어느시골에 두내외가 아들도업시 사랑스러운 딸자식하나와 말(馬)하나를 길우며 살아가는 한집이 잇섯습니다

이러케우슴으로 지내는 그집에도 큰긱정이 하나 생겻습니다 그것은 그집와 거절만이아니요 그나라의 큰 근심이엇습니다

그나라에서는 만호군사를 머—큰러머—큰러보내여다든나라와 차홈을 하지안호면 안되게되엇습니다 이러케되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지럽가 뭇어엄엇습니다

그집주인도 병정으로 쌉혀가게되엇습니다 주인은 우는안해와딸에게「내가가면죽을것이아니니 그동안집안일이나 잘들보고 말이나살지게하소」하고부탁한뒤에 차움터로 향하얏습니다 그러하야 안해와딸은 한숨으로 세월을보내게되엇습니다 주인이 차움터로간지도 어느듯일년이나 넘엇습니다

하로는 안해가딸에게 죽음주며 혼자말로「이놈의말아! 네가 차움터로가서 네주인을다려오면 내딸아라도주지!」하며중얼거렷드니, 말은귀를흔칫하며 알아듯는것가탓습니다

그이튼날 어쩐생이지 말은간곳이업섯습니다 말이업서진지가 두어달후에 주인이말을타고 와습니다 그러하야 그집엔또다시 우슴의꼿이피엿습니다

그러나 그집엔 또다시큰걱정 한가지가생겻스니안해의혼자중얼거린말을 말은 신(信)잇게들엇든탓가지 딸을보면 넘우나조하라고 뎀벼듭니다 그러나주인은 참아 사람을 말에게 줄수는업서 딸의압해서는 말을보이지아니하얏습니다

그럼으로 말은 그째부터죽도잘안먹고 나날이 여위어지드니그길로병이들어누어서 눈물을흘리며오래동안 알타가 마츰내죽고 말엇습니다

그리하야주인은 불상히녀기며 가죽을벗겨서는 뒤ㅅ산에다 그가죽을 무더주엇습니다 그리고 그가죽은 말리느라고 마당에다 펴노핫드니 딸이마츰물길러 가다가 밋글어저 중상 한지아 삼월뒤에딸도마저 아세상을떠낫습니다

그러하야 그주인과 안해는슬피통곡하면서 죽은딸도 뒤ㅅ산에 무덧습니다 그러하얏드니몃날뒤에딸의 무덤에서는 어엿분 벌레하나이나오고 말의무덤에서는 이상한나무한그루가 솟아낫습니다

그러드니 그버리는 그나무잇는곳으로 괴어가나무가지가지사이로 타고놉며 그나무닙사귀를 씹먹고 잇섯스니 이것이 생나무와 누에의 처음이엇습니다 그리하야 그버리는그나무입사귀라야 먹으며 또얼마자나서는알을 깜하기 고세기를퍼뜨렷습니다

入選「馬의傳說」

相思馬의化魂 厚昌郡厚昌面 洪仁德
『신발』龍馬水 蔚山溫陽公普 辛東煒
白馬의萬古忠魂 京城苑井町一五四 春綵鄭鑑

◇晉州◇

晉州實業春秋會

朝鮮慶南晉州錦町 藥種賣藥 材貿易商 元昌藥房 主 元準玉 電話一一〇 振替釜山三七九八番

晉州南原 李吉浩

固城郡 崔載顯

晉州 姜千秀

晉州 朴奎錫 電話六五番

晉州 姜周秀

晉州 河泳珍

晉州劵番 電話二五〇番

晉州康洲 姜萬秀

クラブ自動車部 電話一二五番

晉陽堂印刷所 電話一五八番

晉州勝山 許治九

晉州勝山 許馥

晉州勝山 許善九

晉州勝山 具驥書

晉州勝山 許萬正

晉州勝山 許絅九

晉州勝山 具仁會

晉州勝山 成泰珩

晉州班城 李慶鏞

◇大邱◇

大邱勞働會 會長 金光瑞 副會長 金學三 電話一二九〇番

大邱市場町藥令市移轉賀行期成會 會長 洪 副會長 金 顧問 梁 電話二二九〇番

◇進永◇

進永 迫間農場

馬山線進永驛前 金潤爽

馬山線進永驛前 進興館 金宗璀

馬山線進永驛前 日省醫院 醫學士 裵大基 助手 姜大昊 分院迫間農場助手 裵商基

馬山線進永驛前 酒造會社 社長 裵東燮 取締役 姜元錫 取締役 松本耕一郎

金海郡進永面本山里 加藏農場

進永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馬山線進永驛前 日新商店 李康宣

馬山線進永驛前 永昌醫院 醫師 諸吉允

馬山線進永驛前 進永面長 宋成學

馬山線進永驛前 自動車部 山崎壽一

昌原郡大山面牛岩里 大山面長 文龍瀚

昌原郡大山面齊洞里 卞榮斗

馬山線進永驛前 金鍊

馬山線進永驛前 金晟允

馬山線進永驛前 進永面協議員 青柳種吉

二北面事務所 職員一同

昌原郡大山面加述里 金炳憲

昌原郡大山面牛岩里 許玹

進永面雪倉里 面協議員 南兌熙

進永面本山里 面協議員 金容股

進永面內龍里 金相湊

進永面內龍里 金泉鎭

馬山線進永驛前 布木商 金正祚

馬山線進永驛前 米穀商 松原又四郎

馬山線進永驛前 京城電氣株式會社進永出張所 李雲宰

馬山線進永驛前 雜貨商 金雨潭

進永面新龍里 宋寶用

二北公立普通學校 校長 金洪大

昌原郡大山面加述里 酒類醸造業 鄭文國

昌原郡大山面齊洞里 面協議員 川野吉民

金海郡進永面 安石憲

昌原郡大山面齊洞里 東面水利組合 具本石

昌原郡大山面加述里 宋彬文

金海進永面進永里 宋彬鉉

昌原郡東面武店里 嚴奎翼

昌原郡大山面齊洞里 郭址勳

昌原郡東面山南里 黃在桓

昌原郡東面月峯里 嚴成燮

昌原郡東面武店里 卞種圭

昌原郡東面月峯里 周鳳柱

昌原郡東面齊洞里 趙頁奎

昌原郡東面春山里 安允鎬

昌原郡東面竹東里 鄭命用

昌原郡東面春山里 金浩甲

昌原郡東面春山里 金昌洛

昌原郡大山面齊洞里 李圭鎬

昌原郡大山面加述里 鄭敏書

昌原郡大山面加述里 崔鉉錫

金海郡進永面佐里 盧相喜

金海郡進永面佐里 崔龍伊

昌原郡大山面加述里 金宗信

進永事務所 職員一同

二北面楡林亭 酒造組合主任 李普勝

進永面松亭里 酒造組合 宋世勳

馬山線進永驛前 大興理髮館 金性九

馬山線進永驛前 補壽堂藥房 梁在馨

馬山線進永驛前 運送店 金偉圭

馬山線進永驛前 公醫 森江末喜

馬山線進永驛前 進永面協議員 土井秀邦

昌原郡大山面里 崔宰秉

群像 (3)

春園 李光洙 作
靑田 李象範 畵

혁명가의안해(三)

머리를 풀어헤치고 저고리ㅅ소매가 반이나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고, 치마 뒤ㅅ폭이 떨어져서 흐트러진것도 모르고 업데지어 우는양을보면 공은 비웃오 내정에 대한 사랑과 욕심아 발한다고하다。그래서 그는 커보다도큰 안해를 어린아이가 대번씩 들어 힘엇 쥐안고 입을 마추고 동을 두듸려주고 달래엇다。그러할때에는 정희는 때할수업는 깃붐과 만족을 늣기다고한다。이러하야 그들의 내외 싸움은 항상 미긋식 행복극으로 끗을마치엇다。

●그러치만는 공이 병이 들어 유치장으로 완전한 남편의 자격무를 못한뒤부터는 싸움만이오 화합밋 이업섯다。내외싸움은 칼로 물베이기갓다고하거니와 그것도 안해는 안해노릇을하고 남편은 남편노릇을 하는때에하는 말이다。녯날은 ── 그러타 퍽 오랜 녯날이다 ── 산에와 녀편네와 혼인하야 부부가되면 안해를 메어치고 실컷 두들겨줄괴로움이 업는것이다。그는 어젼가 한번 몸이어 안해에게 휘둘려 허한 몸이 공중 거리를하야서 다랑의각혈을 한것과 그때에 정희는

「흥。쇠약신이 보아!」

하고 빈정거리고 왁 문을 닷고달아난것을 긔억한다。

이러한때에 오청(五鼎)군이 온다。

그는 의학전문학교 정모를 쓰고 때인 코존뿔이은 얼굴 우롱하고 삼스걸 붉그레한 청년이다。청은 권(權)가。

「아이 오청씨 오슈?」

하고 정희는 반색하고 손을 내어민다。오청은 어림빗잇는얼굴에 수삽한 빗을띄우면서정희와 통통하고짜릉한손을잡는다。정희는 마치 친동생에게나 하는듯이 악수고난 손으로 오청의 외투를 벗기는체하고 오청을 써안는모양을한다。이러하는동안에 정희의 눈은 처첨 커지고 빗나지어서 그용모와

와러뭇, 법으로 얽매임이되어 일생에 서로떨어질것을 예상한 일이 업섯고, 그보다더좀 나려온 녯날에는 소위 사랑이란것이잇는동안에는 법이야 의리는 어찌되엇든지, 또는 행아든지 불행이든지 피차에 정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엇다。그러나 남녀관계에 사랑을 말하는것도 이제는 녯말이 되어버리고말앗다。지금세상에도 사랑이니, 정조이니 말들하는 사람이 잇스나 그것은 벌서 이정거장을 떠나서 파거쳐는 긴 런벽을 향과 한들도 모르고 불혀진지 오랜 대합실 난로앞해서 지내간 렬차를 기다리는무리들이다。그들은다 무릅 미테 나려오는치마를입고 녯날 커녀들이 가지엇던 수집음을 쐬고잇섯다。그러나 오늘날 계집아이들은 이러한 녯날처녀들을 놀라움과 웃음으로밧게 대 볼수는 업는것이다。

「여보 당신이 무엇으로 내남편이오? 의식을 못주어, 칭의 만족을 못주어, 무엇으로 남편이란말이오? 남편이면 남편인가, 남편노릇을 해야 남편이지」

이러한 말을 오극 정희만이 가난하고 병든 남편에게 하는 말이아니다。

「응응!」

하고 공산은 며칠동안 업다는듯이 불쾌한 소리를 지른다。그러나 해진 밤에도 분이떠오를것이다。그러처마는 그에게는 어느날 괴운이 업섯고 또 실후어나다하드라도 그 할미쁜

래도가 잇가 정희와는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

오청은 정희의 지내친 웅웅 공씨의 압헤서 밧는것이 심히 미안한듯이 찡서 정희의 시선을 피하며 공의머리마테무릅을 꿀코, 쾌활한서생식어조로

「오늘은 좀 어떠서요? 밤에 좀 주므시잇나요?」

하고공의팔뚝을잡어맥을집는다

가버린靑春

李大容

뒤ㅅ뜰에 복사쏫 쌜가케피여
나비야 벌이야 깃붐에 셈벼
懲열고 망연히 바라다보다
뵈입지 못한님 그려여보앗다

◇

고요한 봄동산 고요한나제
꿀꿀꿀 흐르는 맑은시내에
빨잡고 가만히 도려다보다
뵈입지 못한님 그려여보앗다

◇

새우는 소리찬 숲그늘에서
머리라 山머리 피아오르는
하아큰 구름장 치어다보다
뵈입지 못한님 그려여보앗다

◇

이맘에 사랑은 불타고타며
것거운 懊悩에 삶오잡히고
이몸의 희망은 졈쏫고쏫고
달콤한 眞情에 장가웟섯베아

◇

춤추고 노래할 나의靑春도
밧업시 밧업서 가버렷고나
쏫가라 쏫가러 구름가러도
멋업시 [illegible]

謹賀新年

◇清州◇

淸州淸水町 全鮮酒類博覽會銅牌受領 忠北酒類品評會一等賞受領 **良俊酒造場** 主 李熙俊 電話一四四番

淸州淸水町 朝鮮料理 **永樂館** 主 宋承哲 藝妓 宋楚雲 一同

淸州淸水町 **淸州衡平支部一同**

淸州本町一丁目 **西原酒造場** 主 崔在玄 電話二〇七番

淸州本町一丁目 **淸玉釀造場** 主 金京植

淸州本町 全鮮酒類品評會一等賞受領 **淳一酒造場** 主 朴公老 電話二四番

淸州驛前 **朝鮮陸運株式會社**

淸州驛前 朝鮮鐵道株式會社 **淸州自動車營業所**

淸州市場町 鋼鐵 木材 **李萬秀商店**

淸州驛前 ●計算株式會社加盟店 **㊣淸州合資運送店** 海陸運送 貨物取扱 委托販賣 代表社員 郭永鴻 主 李□□ 電話五八番 電略(セイ)又ハ(ワウ)

忠北線淸安驛前 米穀、雜穀、宮□、肥料 **穀物商會** 主 朴昌圭

淸州邑 **慕忠會員一同**

淸州驛前 **ヤンマ發動機商會**

淸州玉山面職員一同

淸安驛前 穀物商 **劉章烈 任鳳彬**

淸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清安穀物協會

淸州本町四丁目 **大通運送店** 主 康奎鉉

淸州驛前 **不運送店** 金弘基

淸州本町四丁目 米穀商 **崔泰熙**

淸州本町四丁目 **高見辨藏**

淸州本町二丁目 **五十風逸作商店**

淸州面事務所

淸州淸水町 土地家屋賣買貸借仲介業及債權取立登記代書 主 **河野玉生** 從業員一同 振替京城一五六七番

淸州道立醫院外科 李鳳爀

淸州淸水町四街里 歐米洋服高等裁縫既製品竝附屬品一式新宮衛御用達 **優美洋服店** 主 鄭弼洙

淸州郡 **玉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淸州市場町 海産物 雜貨商 **李正華**

忠北線淸安驛前 **曾坪釀造組合** 宋寅燮 崔鳳柱

淸州本町三丁目 **東一自轉車店** 主 金東鎬

淸州本町五丁目九九 旅人宿 **朴熙陽**

淸州本町 **北一樓** 上田義次郞

淸州本町一丁目 醫學博士 **岩切濟治**

淸安驛前 米穀貿易 **橫山兄弟商會**

槐山郡曾坪里 面長 **李敎泳**

淸安驛前 米穀商 **李鍾璇**

淸安驛前 米穀商 **安鳳濬**

淸州本町五丁目 米穀商 **金元根** 電話一六五番

淸州西町 **閔泳殷**

淸州本町二丁目 **日海旅館** 電話一二七番

淸州郡加德面芮洞里 **申相雨**

淸州本町二丁目 東洋고무工業會社忠北特約店 總고무靴卸販賣 **廣信商會** 主 權元奎

淸州本町四丁目 各種雜貨卸商 **北一商店** 主 金浩柄

淸州本町四丁目 **泰華精米所** 主 李鳳雨 電話二六番

淸州淸水町 **朴容圭**

淸州西東町 **黃閏洙**

淸州本町二丁目 金銀細工洋靴專門 **朴鍾憲 朴贊錫 朴敬學**

淸州鄕町 主事 **金世鉉**

淸州郡江西面院坪里 **鄭元模**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米穀商 洪淳金

淸州郡芙蓉面芙江里 ⑦運送店 禹德三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芙蓉理髮所 金敎信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素麵業 朴永甲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貨商 黃龍源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理髮業 林五用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素麵業 鄭華瑞

淸州郡芙蓉面芙江里 布木商 源生永

淸州郡芙蓉面芙江里 布木商 源和東

淸州郡芙蓉面芙江里 醸造家 **朴魯彦**

淸州郡芙蓉面芙江里 有志 **羅相玉**

淸州郡芙蓉面芙江里 雜貨業 **吳仁鎬**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興信商會 主 **吳熙淳**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素麵雜貨商 林學吾

淸州郡芙蓉面芙江里 典當舖 李主鎬

淸州郡芙蓉面芙江里 有志 李主廷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米穀商 李主燮

淸州郡芙蓉面芙江里 魚物商 金學經

淸安邑內 自轉車商 金祥年

淸安邑內 米穀商 趙聖九

淸安邑內 **洗海醫院** 主 姜大應

淸安邑內 **新興理髮館** 主 金德天

淸安邑內 面會計員 洪性浩

淸安邑內 面書記 洪性裕

淸安邑內 面書記 尹萬甑

淸安邑內 面書記 金在昇

淸安邑內 訓導 **李彰周**

淸安邑內 面書記 鄭昌鎬

淸安驛前 米穀商 安永先

淸安驛前 信永自轉車商店

忠北線曾伊驛前 穀物貿易 ◎運送業 **朴珍陽**

忠北線大召院 大昌商店 主 **鄭泰謨**

忠北線大召院 穀物貿易 **永信商店** 主 金鍾厚

忠北線大召院 **大興旅館** 主 崔鍾泰

忠北線大召院 米穀雜貨 石油肥料商 **李夢龍**

淸安驛前 重要物産 米穀業 **宋寅燮**

淸安驛前 穀物商 **金顯國**

淸安驛前 素麵 陶器商 **董再守**

淸安驛前 農具一式 **荒尾商店**

淸安驛前 米穀商 **朴寅東**

淸安驛前 朝鮮料理 **迎春館**

淸安驛前 米穀商 **裵魯憲**

淸安驛前 ①朝鮮合同運送株式會社支店 主 **崔載熙**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芙蓉面事務所 **職員一同**

淸州郡芙蓉面芙江里 芙江公立普通學校 **學父兄會**

淸州郡芙蓉面芙江里 酒類製造業 金文山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米穀組合一同**

淸州郡芙蓉面芙江里 **保安組合一同**

淸州郡芙蓉面外川里 有志 **金保璟**

淸州郡芙蓉面登谷里 有志 **金瑞鳳**

淸州郡芙蓉面芙江里 司法代書 **尹成吉**

淸州郡芙蓉面芙江里 有志 **金昇鉉**

淸州郡芙蓉面芙江里 素麵業 鄭自先

淸州郡芙蓉面芙江里 實業家 權京道

淸州郡芙蓉面芙江里 飮食店 長興園

淸州本町二丁目 子午堂時計店 主 李鳳永

淸州本町二丁目 博文堂 主 **洪淳良**

淸州淸水町 綢緞布木 **合盛商店**

淸州香町 面協議員 **李東洙**

淸州 面協議員 趙振浩

淸州本町一丁目 飮食店 **朱玉信**

淸州本町二丁目 飮食店 金亨均

淸州本町一丁目 朝鮮料理 **泰平館** 主 金泰鎭 藝妓一同

淸州 **無名氏**

淸州加德面斗山里 中耕績

淸州市場町 **金昌奎商店**

淸州本町一丁目六七 司法代書人 朴贊圭

淸州本町二丁目裁判所前 司法代書人 **元田元吉**

淸州本町一丁目 歐米最新洋靴製造附屬販賣 **淸州洋靴店** 主 金效應

淸州淸水町二二八 旅人宿 **田淳哲**

淸州本町五丁目 米穀商 **徐云先**

淸州郡南一面坪村里 **柳鎭馨**

淸州郡玉山面烏山里 **陳達元**

淸州本町一丁目 綢緞布木婚具一式 **金喆煥商店** 電話二二一番

淸州驛前 朝鮮旅館 主 尹泰永 電話一五一番

淸州本町三丁目 進士 **尹洛鎬**

淸州本町一丁目 布木商 **金春植**

淸州本町四丁目 **普濟醫院** 李惠雨

淸州淸水町 麥粉砂糖鹽類肥料雜穀類販賣 **池龍熙商店**

淸州本町一丁目二〇九 日用雜貨各種帽子 **忠北商會** 主 朴來俊

淸州本町一丁目 最新洋服高等裁縫 **朝鮮洋服店** 主 鄭在汝 一

淸州郡北二面事務所 代表 **吳永田**

淸安驛前 **金錫培**

淸安驛前 旅人宿 **孫聖禧**

淸安驛前 米穀商 **洪忠義**

淸安驛前 旅人宿 **金点玉**

淸安驛前 **曾坪連班稧一同**

淸安驛前 米穀商 **金炳奎**

淸安驛前 旅人宿 **朴元龍**

淸安驛前 米穀商 **張基韓**

淸安驛前 고무靴商 **金在春**

淸安驛前 旅人宿 **林元甫**

淸安驛前 米穀商 **鄭景好 趙容載**

淸安驛前 **永興自轉車商會**

淸安驛前 忠北線移出組合員 **金晩基 藤井廣吉**

淸安驛前 忠北線移出組合員 **岡崎太郞** 電話五番

淸安驛前 米穀商 **劉興汝**

淸安驛前 米穀商 安永先

◇泰仁◇

泰仁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湖南線新泰仁驛前 **泰仁醫院** **泰仁醫院禾湖分院** 院長 尹書旭 產婆 金設丹 本院電話新泰仁五一番

井邑郡龍北面禾湖里 **熊本農場**

湖南線新泰仁驛前 肥料 穀物 **朴榮求商店**

全北泰仁邑內 **無極道**

湖南線新泰仁驛前 金銀細工 各種佩物 美術製造 販賣 **新盛金銀商店** 主 朴弘燮

井邑郡甘谷面甕江里 **姜贊中**

全北泰仁邑內 各種自轉車 附屬品部分品販賣 其他機械修繕 **宋芳浩商店** 電略(仝)

井邑郡甘谷面 書記 許□

湖南線新泰仁 金□□

井邑郡七寶面 面長 金東柱

湖南線新泰仁 李熙晃

井邑郡甕東面山城里 □□□

湖南線新泰仁驛前 朴昌緖

井邑郡泰仁面月田里 金□千

井邑郡七寶面 **金泳燮**

井邑郡龍北面九石里 道評議員 **姜甲秀**

禾湖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井邑郡山外面 **事務所職員一同**

全北泰仁邑內 宋鎭鎬

湖南線新泰仁 □守萬商店

井邑郡□□面 面長 金道允

湖南線新泰仁驛前 各種藥種、化粧品、賣藥品 **東亞藥房** 主 □東湖

謹賀新年

◇海州◇

海州南本町 延白自動車海州支部 電話二一〇番

海州南旭町 共立殖産合資會社 組合組織殖産商會 海州支店

南川驛 信川驛 馬山康翎 海州運送店 海州貨物自動車部 電話一〇四番 取扱所南川驛 電話四三番 (運)運送店

海州懿貞女子普通學校 職員一同

海州電氣株式會社

海州正內女子普通學校

海州西榮町 合名會社 西鮮精米所 代表社員 李壽永

黃海道廳 食堂員一同

海州南旭町 海州印刷組合 電話二二六番

海州南本町 迎陽館 電話一三二番

海州東榮町 日新醫院 院長 朴贊行 電話一七八番

海州中華商會 正會長 郝天師 副會長 馬光遠 通譯 邱東海

海州北旭町 西鮮醫院 院長 李心圭 電話一六四番

海州南本町 宗路商會 主 孔仁麒

海州南旭町 永興旅館 主 金永詰 電話一四八番

海州上町 吳龍煥

海州南本町 朝日醫院 院長 裵秉?? 電話二?番

海州南本町 中央醫院 院長 金潤玉 電話二三四番

海州南門通 和洋菓子物 强堂製菓所 主 李興成

海州南旭町 丙辰果樹園

海州南旭町 …明堂 主 吳恩仁 電話二三六番

海州面協議員 崔馨稷 電話一四〇番

海州懿貞普通學校 職員一同

海州南本町 木材 セメント一式 石炭 浪板 及平板 殖産商會 電話一〇一番

海州南本町 日用雜貨 東西洋品 東明商店 主 崔昌文 電話一四二番

海州北旭町 賣藥 藥料 同和藥房 黃海道總支店

海州南山峴 肺結核專門 救世療養院 電話一七五番

海州救世病院 電話三三番

海州東榮町 大亨齒科醫院 院長 崔丙智

海州金融組合

海州北新町 首陽農園 主 金濟奉

海州殖産組合

海州南本町 活版石版印刷及 和洋紙文房具一式 諸官衙御用達 啓明社 電話二六九番

海州面協議員 李圭曄

海州南旭町 海昌自轉車店 主 金萬玉

海州海雲橋 海州釀酒場 電話一六二番

海州南本町 共益商會 主 李膺鎭 電話五〇番

海州南本町 中華料理 豐盛園 電話一五五番

海州南本町 朝鮮料理 中華料理 大正館 電話一四〇番

海州南本町 綿… 主 曹…永 電話一〇五番 …堂

海州南本町 金德壽商店

海州南本町 興寬洋靴店

海州廣石町 …商 朴季和

海州南旭町 池田寫眞館 電話二七九番

海州南本町 司法代書人 曹秉奎

海州南本町 兄弟洋靴店 主 張濟淳

海州南本町 張琴鉉自轉車店

海州南本町 和洋菓子洋食料品洋食器 賞美堂製菓所 電話二四五番

黃海道立海州醫院 職員一同

海州面長 沖本正晴

海州西榮町 米國テキサス石油會社 黃海道總代理店 東富商會

海州郡錦山面事務所

面長 崔 浩
書記 崔來鎬
書記 元晶喜
書記 李淵圖
書記 金成總
書記 崔觀圭
書記 金相應
技手 李東薛
森林監視員 朱宗鎬
雇員 安承根

海州郡檢丹面冶井里 朴炳悌

海州無盡株式會社

海州郡廳職員一同

◇高興◇

高興郡廳

高興郡邑 全南道評議員 金相亨

高興公立普通學校

高興郡邑 全南道醫院長 方天慶

高興郡邑 世東醫院長 韓世東 助手 申理雨

高興郡邑內 高興自動車部 主 金善洪 高興-寶城間 高興-順天間 貨物自動車高興-筏橋間

高興郡古邑面 面長 鄭永圭 外面職員一同

高興郡道化面 面長 丁敬秀 外面職員一同

高興郡占岩面 面長 洪珍洙 外面職員一同

高興郡南面 面長 申暢雨 外面職員一同

高興郡大西面 面長 宋基哲 外面職員一同

高興郡浦頭面 面長 申萬雨 外面職員一同

高興郡南陽面 面長 孫在三 外面職員一同

高興郡豆原面 面長 徐洪基 外面職員一同

高興郡高興面 面長 裵俊大 外面職員一同

高興郡東江面 面長 姜舜永 外面職員一同

道陽公立普通學校

高興郡邑內 郵便所長 小林正武

高興郡過驛金融組合理事 李喜鍾

高興郡邑內 申常休

高興郡邑內 印刷所主 宋充燮

高興郡邑內 鄭珷植

高興郡邑內 申午休 申址雨

高興郡邑內 百瀨覺兄

高興郡邑內 司法代書人 朴琪鉉

高興郡邑內 長浦農場

高興郡東江面馬輪里 酒類製造業 金珉錫

高興郡邑內 前田農場

高興郡道化面 雜貨商 林鉷洙

高興郡浦頭面 宋判祚 金炳厚

高興郡南面 雜貨商 李永泰

東江公立普通學校

古栗公立普通學校長 石田德光 訓導 柳彩文

浦頭公立普通學校長 谷口勝

過驛公立普通學校長 坂本四郎

南陽公立普通學校長 三村信男 訓導 柳琮奭

◇春川◇

京城地方法院支廳 朴承俊

春川 辯護士 崔白洵 電話六四

春川電氣株式會社 社長 山中友太郎 電話一〇六

朝鮮興産合資會社 春川出張所 小串政次 電話一六六

春川郵便局長 山手德四郞 外局員一同

春川營林署 東阪市太

春川面協議會員 申台鉉

春川昭陽通 農具商 今泉善夫

春川面協議會員 丁殷燮

春川 江原道土木建築請負業組合 電話一三三

春川金融組合

春川 泉田公立普通學校一同

春川 牛頭水利組合 電話二三

春川 鮮滿商會主 黃福秀

春川本町 春川商會

春川百貨店 主 池奎高

春川自動車商會 電話一七九

春川 中華料理 東月樓 主 金東守 電話一三六

◇寶城◇

寶城郡邑內 公醫 山道雅雄

寶城郡邑內 貨物自働車部 昭和自動車停留所 主 岡米庄太郎

寶城郡邑內 雜貨 食料品 共營自動車停留所 田中榮藏

寶城郡邑內 福盛館 主 酒井長次郎

寶城郡邑內 寶城印刷所 主 金平根

寶城郡 寶城郡廳員 各産業團體職員一同

寶城郡邑內 有志 金永學

寶城郡邑內 司法代書人 鄭海聲

寶城郡邑內 郵便所長 賴近官太郎

寶城郡寶城面珠峯里 有志 崔錫浩

寶城郡邑內 有志 菅原久

寶城郡邑內 加藤出張所

寶城郡寶城面玉岩里 有志 李夢載

寶城郡得粮面禮堂里 有志 黃圭顯

寶城郡得粮面松谷里 有志 梁棟承

寶城郡熊峙面 職員一同

寶城郡鳥城面 職員一同

寶城郡彌力面 職員一同

寶城郡邑內 司法代書人 朴成鏞

寶城郡邑內 寶興宮藥房 金容在

寶城郡邑內 寶城酒類製造社

寶城郡邑內 寶城面職員一同

寶城郡邑內 寶城公立普通學校長 足立新藏

寶城郡邑內 有志 岩間一吉

寶城郡邑內 三浦旅館並自轉車商 主 三浦勘之亟

寶城郡寶城面玉岩里 有志 李洪來

寶城郡寶城面玉岩里 有志 李範載

寶城郡得粮面 得粮面職員一同 李範載

寶城郡得粮面 得粮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寶城郡得粮面五峯里 有志 李秉升

寶城郡得粮面松谷里 有志 梁鵬煥

寶城郡得粮面五峯里 裵中火器 李進來

寶城郡邑內 裵中火器 金永皓

ClibPDF - www.fastio.com

新釋水滸傳 (589)

尹白南 譯　李靑田 畫

第七十四回 沒羽箭飛石打將(二)

관승은 떠오래싸울신명이 없어서 뺑줄을돌려 돌아오니 쌍창장동평(雙鎗將董平)이 이것을보고 속으로 생각하되

「새로 항복하나로서 아모부술도보이자안코 산진으로올라가기는 무색한일이로 이편에서 한번재조를보여주겟다」

하고 쌍창을휘두르며 진밧그로나달으니 장청이 그를보고 크게꾸짓는말이

「너의다와는 본래 이웃고을에서 배슬을하고 이튼터이라 맛당히 나를 도아서도적을토벌하는것이도리에올거들 조뎡에 배반하야 도적무리에투신하야 나를맛나게되니 량심에부끄럽지도 모르느냐」

하니 동평이마조꾸짓즈며 달려들엇습니다

세개의 창은 마상에 서로얽히고 말굽소리는 영우에요란하드니 오십합에어르러서 장청이 말을돌려 도주하기 시작햇습니다 동평은 냉소하며

「다른사람은 너의돌에마즛거니와 나한테야 무슨소용이잇겟느냐」

하고 비웃드니 장청은금랑속으로서 한개의 돌을끄집어내서 오른손을 번쩍들자마자 벌서돌은동평의얼굴가이 날아왓습니다 동평은 얼른 그것을보고 창으로써 돌을막아 쳣습니다 장청은어느틈에 벌서둘재의돌을 더젓습니다그러나동평은그것마저 날새게 피햇습니다 장청은두번 실패에 화가나서 말을달려진중으로도망해돌어가려하는것을동평이 또쫏차가며 창을들어 그의등을찌르려햇습니다 장청은 위급한순간에 몸을숨기며 창으로써 대여햇습니다 이때하야 두장수의팔이 서로 나란히서게되매 장청은창을내던지고 팔로써 동평을잡고 창든손을잡아제치려햇습니다마는 동평은 죽을도록하지안코 두사람이 한뭉치가되어서 싸우고 잇습니다

송강진에서는 색초(索超)가 그것을보고 도끼를들고 내달아도니마는 저편에서는 공왕(龔旺)과 정득손(丁得孫)이 내달아색초에게대적하야 세사람의한뭉치와 두사람의한뭉치가 각기접전다하야 싸우고잇습니다 림충, 화영, 려방, 곽성의 네사람이 두장수의위급함을보고 일제히나가서 동평과색초를 구원하니 장청이 셰불리함을 보고 본진을향하야 도주합니다

동평은 괴호지세로 그의뒤를 쪼치면서 우연히 돌을막을생각을이첫드니 장청은도망하면서 몰래 돌을끄내서 별안간고개를 돌리며 돌을날렷습니다

동평은 삽작놀래며 급히몸을 돌리니 돌은 귀썁을 스치고날아갓습니다 동평은 추격을중지하고 본진으로돌아옵니다 색초가 동평이돌아옴을보고 자긔역시 본진으로몰아올려햇드니 장청이 어느틈에 돌을던저 색초의 얼굴을마쳣습니다 색초는 얼굴에피를흘리며혼이떠서 본진으로도망해왓습니다

차설 림충과화영은 한편에서 공왕과싸우고 려방과곽성은 저편에서 뎡득손과 싸우는대 공왕이초조하야 [illegible]을 물수히 던지뒤라 [illegible] 림충에게사로잡혓습니다

이때에 뎡득손은 비차(飛叉)를 던저돌으며 곽성의힘으로도 섬게 승부를지으지못햇습니다 송강진중에서 멀리 그광경을보고 잇든랑자연청(燕靑)이 생각하되

「우리편장수는 이미 십여인이 전패를햇는데 적군의편장하나도 사지못해서는 무슨면목으로 두령을뵙고」

하고 활을들어멀리 뎍장을겨냥하야 쏘으니 살은틀림업시뎍장의왼팔뒤에마젓습니다 말이놀래서 뛰는바람에 뎡득손은 땅에떨어지고 려방곽성은 곳달려들어서 그를잡아잡앗습니다

장청은 그를 구하려햇습니다마는 중과부뎍이라 하는수 업시 류당(劉唐)하나만을 끄을고 동창부로 몰아갓습니다

태수는 성루우에 올라서장청이 량산박의장수 열다섯명에게 욕을보이고 비록 공왕과뎡득손을 잡혓다하드라도 류당을살오잡아온것을보고 매우깃버하야 술잔을들어 그에게 하례를마지지아니햇습니다

그리고 류당에게는 큰칼을씨워서 하옥시키고 또다시적도토벌의 상의를 거듭햇습니다

차설 송강은 공왕 뎡득손을 량산박으로보내고 로준의와 오용더러하는말이

「비록 적장이나마 오늘장청의 함악은 가히 [illegible]할만하지안소…!」

하며 두사람의긔색을 살펴보앗습니다

謹賀新年

◇新義州◇

新義州榮町四丁目(停車場通用)
齒科 口腔外科
新義州齒科醫院

新義州老松町
新義州基督敎青年會
電話八四四番

新義州眞砂町
碧蓮商會新義州支店
電話六一八番 振替京城一二三六番

新義州老松町七ノ一二
原木製材雜木頭及雜林 其外品材拂下販賣
元吉材木店
李益珍
元炳春
電話五五九番

新義州梅枝町
製材原木 都賣散賣
義昌製材所
電話一三〇番

平安北道各金融組合
平安北道金融組合聯合會

新義州府老松町
內外國產紙 各種油紙 書畵紙 防水雨衣具
光成紙物舖
主 林公範

新義州
士曜會

新義州府老松町
內德護謨工業所支店
權永一

新義州榮町五丁目三番地
精米機 製材機 諸機械 農具 建築金物 其他諸機械製作修繕工事請負 機器販賣 設計
新延鐵工所
朴龍雲
電話長七三二番 (電略シンエン)

新義州府眞砂町五丁目
印刷 製本 一式
朝鮮堂印舖
電話四二二番 振替京城一五六九〇番

新義州眞砂町
太平洋服店
電話五五〇

新義州眞砂町
高秉哲
電話六五八番

新義州
國境寫眞舘

新義州老松町
實業家 **金基鴻**
電話四四〇番

新義州
府協議員 實業家 **獨孤烈**
新義州義興商會 電話一〇八番

新義州
府協議員 辯護士 **李熙廸**
新義州眞砂町 電話三〇七番

新義州
府協議員 醫師 **金英哉**
新義州東華醫院 電話二〇五番

新義州
府協議員 辯護士 **卓昌河**
電話三二一番

新義州
金善述
電話八二十三番

新義州基督敎青年會
會長 **李鳳首**

新義州老松町
敎科書類 新聞雜誌 文具雜貨
文化堂
電話七一三番 振替京城二七五五番

新義州府老松町
新義州織造産業組合
電話五一六番 電略サンキン 振替京城一五二五五番

新義州老松町
辯護士 **朴榮徽**
電話一三八番

新義州梅枝町
埠頭組合
電話五六九番

新義州眞砂町三丁目
美和洋服店
安仁健

新義州老松町
又新旅舘
李鐵子
電話一七六番

新義州公立普通學校
新義州公立工業補習學校
職員一同

新義州眞砂町七丁目十四
濟衆醫院
院長 李熙遇
電話三三三番

新義州
借地人組合

新義州雲井町二番地
東洋自轉車商會
裵宗德
電話五一九番

新義州眞砂町
利和時計店
電話一四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三〇番

新義州眞砂町
穀物貿易 委託賣買 精米業
金隆商會
電話一番

新義州眞砂町
新鮮洋服店
宋文彬

新義州雲井町
米穀輸出入精米業 貿易商
新光精米所
電話六九番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
專門 內科
國境醫院
院長 韓宗洙

新義州眞砂町四丁目
華山齒科醫院
院長 李根用

新義州榮市
雜貨 牛肉 果物
新豊商店
主 金呂日

新義州
周旋業 **車根培**

新義州府榮町四丁目
辯護士 **崔昌朝**
電話七三〇番

新義州驛前
原木製材 委託販賣
永昌材木店
電話長八六二番
車文[illegible]

新義州府眞砂町
海陸産物委託賣買
龍楊商店
裵奉明

新義州公立高等普通學校長
今井嘉一

新義州府
秋巖堂醫院
電話八六五番

新義州榮町
鴨江寫眞寫場所
鴨江寫眞舘
電話七三〇

新義州若竹町九番地
安興商店
主 安秉瑞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原木製材委託販賣
國鉉材木店
全國鉉
販賣部 雲井町三番地

義州郡
光津水利組合
金學鉉

義州郡古津面
韓一賢

新義州
新築落成
和義金融組合

新義州老松町
協產材木店
創業部 木工部

新義州若竹町
永春同
宋啓夏

新義州若竹町九
獸肉販賣店
主 高一先

木材商古山商店
趙尙鈺

新義州警察署
署員一同

日用百貨 諸紙文具 直輸入商
一隆商店
電話五六三番 振替京城一二八六番

新義州眞砂町
和洋百貨
三輪洋行
電話七二一番

新義州眞砂町六丁目
德山醫院
院長 金承鎬
電話三五番

義州郡古津面
古邑水利組合長
趙尙鎬

◇廣州◇

廣州郡麵子製造組合

廣州郡畜產同業組合

廣州警察署

廣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廣州郵便所長
安田淸行

廣州郡九川面長
魚滄

廣州南漢山城
山城釀造場

廣州南漢山禁林組合長
石東均

廣州郡南終面分院里
金[illegible]

廣州郡廣安面長
李仁永

廣州醫院
公醫 **李商鎬**

廣州郡實村面[illegible]里
醫生 **李思國**

廣州郡南終面分院里
金尙煥

南一釀造所
金憲榮

石油會社代理店 光興商會主
姜光遠

廣州郡退村面[illegible]里
李致文

廣州郡分院
金融組合

◇驪州◇

驪州郡
郡守 **任是宰**

驪州郡
宮崎虎彥

驪州郡
俱樂部

驪州郡
三浦忠造

驪州郡
西原了

驪州郡
南面事務所
面長 金夔洙

驪州郡
職員一同

驪州郡[illegible]面長
方範疇

驪州郡
近和面長 **金基周**

驪州郡
驪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驪州邑內
[illegible] **文弘**

惟一舘

東坡樓

金昌洋服店
金思昊

チキサス石油會社代理店 格新商店主
任女淳

スタンダード石油會社代理店 大邑百貨店主
金鼎培

主任 **朴勝來**

京畿地方法院驪州出張所
主任 **岩佐健兒**

驪州郡分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驪州上一公立普通學校長
杉原久米四郎

東洋拓殖會社京城支店
山下俊雄

驪州郡九川面[illegible]寺里
金鍾瀚

[illegible]公立普通學校長
青星千晶

[illegible]
金光植

驪州郡
驪州公立普通學校
校長 **山本[illegible]之**

瑞城靑年會
會長 **佐藤淸喜**

驪州郡
[illegible]川直之

驪州郡
高橋喜久治

驪州郡
梅澤正午

驪州邑內
善實商會
趙仁植

驪州邑內 司法代書人
李性欽

驪州邑內
李鍾稷
李鍾阜

驪州邑內
金基[illegible]

金永[illegible]

驪州郡
瑞和公立普通學校
校長 **吉岡繁**
職員一同

謹賀新年

◇熙 川◇

熙川邑內 正化醫院 院長 韓受奎

熙川郡廳

熙川郡內 平安自動車商會 主 金奎鶴
會主以下謹愼中으로年賀禮를廢함

熙川 新豐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熙川 東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熙川邑內 濟衆醫院 院長 韓民濟

寧邊郡泰平市 金盛商會

熙川邑內 平寧自動車商會 主 金祥炫

熙川郡新豐面 新豐泉燒酒釀造元 石原榮一

熙川邑內 朝鮮料理 明月館

熙川郡熙川面加羅之洞 有志 金台憲

熙川郡 東倉面職員一同

熙川警察署職員一同

北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克城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眞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所要項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熙川新豐面事務所 職員一同

熙川北面事務所 職員一同

熙川長洞面事務所 面長 金昌龍

熙川郡內 金利燮

熙川邑內 釀酒業 共盛商會

熙川邑內 熙川理髮館

寧邊郡球場市 金豐商會 主 張月燮

熙川郡東面長坪市 泰昌商店 主 金德氣

熙川北面 學校評議員 李學賢

熙川郡長洞面新洞 醫生 申允虎

熙川郡西面事務所 面長 白祥壎 會計員 申泰鎬 書記 朱啓壎 同 趙文壁 同 金用潤 農會技手 金尙麗

熙川公立普通學校 校長 山下末吉

熙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熙川新豐面 學校評議員 趙基龍

熙川郡長洞面元興洞 金禹壎

熙川郡西面平院洞 梁泰俊

熙川郡長洞面新洞 金暘壎

柔院鎭郵便所

熙川郡長洞面元興洞 金義範

長洞面生洞 雜貨商 李炳己

熙川邑內 金贊淑

熙川邑內 司法代書人 金昌善

熙川郡東面 金景星

熙川邑內 梁建浩

熙川郡長洞面新洞 金錫憲

熙川郡眞面事務所 職員一同

熙川邑內 熙安英油組合 李珍奎 金承燦

熙川金融組合

熙川郵便局

熙川公立小學校

新義州地方法院熙川出張所

熙川邑內 日鮮族館

熙川郡新豐面 新豐醫院 金宗襄

熙川郡長洞面 釀酒業 同和商會

熙川郡 長洞公立普通學校 張濬謨

新豐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東倉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生洞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舘洞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東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熙川邑內 名刺ハガキ 封筒印刷 松岩堂

◇沙里院◇

鳳城炭礦株式會社

鳳山礦業所

沙里院金曜會

朝鮮殖産銀行沙里院支店

朝鮮商業銀行沙里院支店

東洋拓殖會社沙里院支店

黃海道鳳山郡舊淵面銀波里 崔應華

黃海道松西面 共成組合營業部

黃海道鳳山郡萬泉面檜亭里 千鷄園 主 李千健

黃海道鳳山郡萬泉面檜亭里 李忠健

黃海道鳳山郡萬泉面檜亭里 李胤永

黃海道沙里院東里 古物商 廣盛商會 主 朴應夏

黃海道鳳山郡舊淵面銀波里 農民組合長 張學善

黃海道沙里院 三世藥院 主 盧滋啟

黃海道沙里院 德成普通學校

黃海道沙里院 天道敎中央總部

黃海道沙里院 金融業 五成商會

黃海道沙里院 北里郵便所長 李東植

黃海道沙里院 雜貨商 鄭在洙商店

黃海道沙里院 食料品海產物商 金禎秀

黃海道沙里院 至誠醫院 院長 李熙鼎 電話一〇八番

黃海道沙里院 萬壽醫院 院長 印廷洙 電話二〇四番

黃海道沙里院 海陸物產委托 德盛商會

黃海道沙里院 內外海產株式會社 沙里院出張所

黃海道沙里院 鏡山醫院 院長 郭炳奎

黃海道沙里院 豐國商會 電話 石炭用二三七番 精米用二一七番

鳳山郡廳 職員一同

黃海道沙里院 海陸物產委托貿易業 金奎涉

黃海道沙里院 司法代書人 柳致祥

黃海道沙里院 朴聖律

黃海道沙里院 崔泰峰

黃海道鳳山郡文井面 面長 邊俊玉

黃海道沙里院 싱가會社 金智植

黃海道鳳山郡德在面 面長 李錫烈

黃海道鳳山郡土城面 面長 李淳操

黃海道鳳山郡西鍾面 職員一同

黃海道鳳山郡萬泉面 職員一同

黃海道鳳山郡萬泉面 鳳山農務組合

黃海道鳳山郡萬泉面萬金里 興風會

黃海道鳳山郡舊淵面銀波里 大成商會 李根成 李根實

黃海道鳳山郡舊淵面 楚邱洑管理組合

黃海道鳳山郡舊淵面銀波里 朴宗熙

銀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鳳山郡西鍾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江 界◇

江界郡守 李鍾殷

江界市內 大正自動車運輸株式會社 電話四五番

江界市內 井上自動車運輸部 電話五番

◇泰 川◇

泰川 陽和寺

泰川 天道敎宗理院

泰川 公醫 金元鳳

泰川郡西面 金龍勳

泰川郡西面 酒造業 李曉浩

泰川邑內 中華料理 天和永

黃海道沙里院 大成洋靴店 主 朴正[illegible]

黃海道沙里院 肥料商 共成商會 電話三〇番

黃海道沙里院 面評議員 鄭淳和

黃海道沙里院 長壽醫院 院長 鄭東[illegible]

黃海道沙里院 三[illegible]主 林敦夏

黃海道鳳山郡萬泉面檜亭里 愼台範

黃海道沙里院 合資會社 東洋商會 代表 高昌模

黃海道鳳山郡舊淵面銀波里 司法代書業 閔光植

黃海道鳳山郡舊淵面 面長 李錫斌

黃海道沙里院 司法代書業 金貞夏

黃海道沙里院 萬花菓子店 金斗[illegible]

黃海道沙里院 材木商 平院商會

黃海道沙里院 布木商 吳得龍

沙里院書舖 電話二三八番

泰川邑內 福生永商店

泰川邑內 義順成商店

泰川邑內 衛生醫院院長 金得禮

泰川邑內 司法代書人 金允柱

泰川邑內 福順祥商店

泰川邑內 義和泰商店

泰川邑內 昭和自動車商會 全洪[illegible]

發動船에端艇衝突 顚覆되어二名溺死

물에빠진두사람은구조를애원하나 발동선에서는부침하나도주지안해

會津渡船場의慘變

【라주】 지난 삼십일원이신구일 오후다섯시경 발동기선(發動機船)과 보ー트가 영산강주류(榮山江本流)인천남라주군다시면 회진(會津)나루(多侍面會津)부에서 충돌되어 두사람이빠져죽엇다는데 이제내용을 알아보면 목포(木浦)와영산포(榮山浦)사이를왕래하는 제이호영포환(第二號榮浦丸)이라는발동기선이 동일오후네시경에 영산포를 출발하야 목포를향하고가든중 전긔 회진나루에도착한즉 라주군다시면신풍리(多侍面新楓里)에사는 림종환(林鍾煥)(二八)이와 [illegible] 신풍리모(某)의집에 고용살이하는 정룡수(鄭龍洙) 두사람이 목포를가고저 전긔영포환에 타라고 보ー트를 저어발동긔선에 접근할때 발동긔선은정류(停留)하지아니하고 출발하는중으로 전긔두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하야 발동긔선이갓가이갓슬때 돌연히 두배가충돌되어 보ー트가 전복되는동시에 전긔 두사람은 필경빠저죽을지음에 구조를애원하얏스나 선장(船長)이하직원일동은 엉둥엉둥하고 부침(浮枕)한개도 던저주지아니하얏다 하야 일반은 영포환의몰인정한 태도를 비난한다하며 전긔정룡수는 무실루가하야 남의집에서 품팔이로 그날그날의 연명을보존하다가 그날마츰 목포에잇는동무를 차저가서 품삭이나하야볼가 하는생각으로 배를 타라다가 그와가티 무참히빠저죽엇다는데 두사람의시체는 행방불명이되어 건지지도못하엿다는바 이소식을들은 라주경찰서(羅州警察署) 사법계주임이하 영산포(榮山浦) 다시면(多侍面) 고마원(古麻院) 각주재소에서 경관대가현장에 출동하야 조사하얏다는데 경찰의처치를 [illegible] 주목하다더라

讀者慰安演藝

청주에서개최

【청주】 새해를마지한 일반독자와시민일반에게 위안을 들이기위하야 본보청주지국주최와 [illegible] 청주지국후원으로 당지관래평관(永樂館大平館) [illegible] 신구음악과 신파극여러가지를 준비중이라는데 일반에게 무료공개할 장소와시일은알에와갓다더라

一、場所 淸州櫻座劇場

一、日時 一月五日下午七時부터

新學期부터 私立校閉鎖

◇삼월부터는폐쇄할예정 和龍縣敎育局方針

【간도】 화룡현교육국장관춘선(和龍縣敎育局長關春彥)씨는 길림성정부교육청장왕화림(吉林省政府敎育廳長王華林)씨로부터의명령에의하야 작춘이래판내사립학교의폐쇄를 긔도하야오든중 요지유재차판내각지에잇는현립학교장(縣立學校校長)에게 명하야 금춘삼월의신학긔(新學期)를 제하야 각사립학교를일률적으로폐쇄하기로 예정중이라더라

雄基聯合懇談

오는칠일개최

【웅기】 웅기신간지회(雄基新幹支會)에서는 지난이십오일에 제일회상무집행위원회를열고 새해벽두로 관웅기를망라한사회단체간담회개최할것을결의하얏다는바 그간담회의 주요토의사항과시일장소는 알에와갓다더라

一、日時 一月七日

二、場所 雄基勞働聯合會館

三、討議事項 [illegible] 其他當面重要問題

生途가漠然하야 柳島住民流離

섬에서먹고살수가업서서 唯一生脈인海業禁止로

【진흥】 영흥군외가면류도(永興郡外可面柳島)는 사면바다에 둘러싸힌섬으로 [illegible]

一、敎養問題에關한件 一、小商人救濟에關한件 一、農民問題에關한件 一、組合問題에關한件 一、借家人同盟組織에關한件 一、失業者救濟에關한件 一、島嶼住民에關한件 一、青年運動에關한件 一、本部讀者會議의件

役員=組合長李正沃 副組合長 [illegible] 理事李京煒

平壤新幹大會

지난삼십일에

【평양】 지난삼십일오후일곱시부터 백선행긔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제삼회신간회평양지회 정긔대회(第三回新幹會平壤支會定期大會)를 조만식(曹晩植)씨의 사회하에 개회하고 다음가튼 각부서를 선정한후 각종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일임하얏다더라

▲執行委員長曹晩植 ▲執行委員韓命和、金納鉉、金建千、池昌宰、李寬淳、金裕昌、趙鍾完、金性業、金炳淵、金正德、明樂

黑橋市에電氣

삼십일부터

【황주】 황해도황주군 흑교시(黃海道黃州郡黑橋市)는 군내에 유수한시가(市街)오 또교통이 번잡하고 각종회의집산지로 당연히잇서야할 전긔가업슴을 일반주민은 크게유감으로 생각하든중 예마츰재년(載年)에 본사(本社)를 두서선전긔주식회사(西鮮電氣株式會社)가 평양(平壤)에서송전을밧게됨을 긔회로 가설신청을 하얏든바 십일월에 가설공사에 착수하야 수일전에 준공되엇슴으로 작삼십일부터 점등케되어 일반시민은 깃버한다더라

雄犬이胞豚

무순의괴사

【무순】 무순현신둔하동(新屯河東)에사는 원진국(元珍國)(三十)은 동리중국인에게서 수캐(雄犬)한머리를사다가 잡아먹고저 죽여서복부를 해부(解剖)하야 내장을 들어내든중 의외에도 포태(胞胎)이개월쯤되는 도야지새끼(豚子)여섯마리가 쏘다저나왓다는데 전긔원씨는 넘우도 신긔하다하야 개고기는버리고 가족과도야지새끼는 [illegible] 보관하야두엇다는대 부근일대의 주한인간에는 수캐가 도야지새끼를나핫다고 모인곳마다 수군거린다더라

新幹會寧大會

여러가지토의

【회령】 신간회령지회에서는지난십팔일오후칠시반부터 동회관에서 권한종(權漢鍾)씨의 개회선언으로 정긔대회를열고 각부보고와축사급축문랑독이잇슨후 집행위원개선과 다음과가튼토의사항이잇섯는데 지난년동안은 뭇지회가 취체상태에잇섯든것만큼 이번대회는 다음일년동안을 회시긔러으로 약진을시하여야하겟다는 회원들의 열렬한 으로 자못긴장리에서 동열두시에폐회하얏다더라

▲討議事項 一、組織問題에關한件 [illegible]

細島消組創立

상부상조의미

【운향신】 통천군부라면북경동세도(通川郡府羅面北京洞細島)에서는 동지유지 리경욱(李正沃)기타제씨의발긔로 지난달이십구일오후팔시에당지석송학원(石松學院)에서 동창립대회를열고 의장리경욱(李炳嵩)씨의긔록으로다음과가티 반경의를한후 동섭이시에 부사폐회하얏다는바이는 농촌경제수립책(農村經濟樹立策)으로 상부상조자립사영(相扶相助自立自營)의정신을가지고

一、組合員의日用消耗品及農作物의共濟販賣共同購入

二、組合員의生活上必要品貸付를목적함이라고하며 현재조합원이 사십여인 일구금십원、구수이백구로오는우력십이원이십원일부터 소미(小米)매두(大豆)칭여동의구입관매사업을사작하리라는데 일반의괴衆)

地主頌德碑

【안성】 안성읍내(安城邑內)박필병(朴弼秉)씨는 동군금광면(金光面)에 [illegible]

元山에火災 處女가燒死

중국사람의집에불이나서 損害額도數萬圓

【원산】 거월이십팔일오후열한시경원산(元山)신정이정목중국인왕유재(王有德)파일본인 천양복정(泉洋福町)두사이에서발화하야삼시간에 화염은충천하고 일원로밧든 소작료를 일체로변경하야 [illegible]

淳井間自動車

【순창】 [illegible]

農事講習會

【상단】 [illegible]

金海兩金組出張所

【김해】 [illegible]

罹病少年이凍死

家勢貧寒治療不能

【홍원】 함남홍원군경포면이흥리(咸南洪原郡景浦面二興里)에사는 리익용(李益用)(二七)이란소년은 원래가정이 빈한함으로 [illegible]

兩郡蹴球大會

【흥경】 [illegible]

本報記事보고 饑寒者同情

부산량씨가

【부산】 지난삼십일본지에 [illegible]

勞聯犧牲者 慰安會禁止

◇연형식으로모여

【원산】 파업당시희생이되어감옥에서 고생을하고 출감한사람을위로하기위하야 [illegible]

地方論壇

新年의所感

肅川 一記者

[illegible]

新年에際하야

江景 一記者

[illegible]

會合

◎元山權友執行委員會 지난二十四日同會館에서開催

◎安城敎育冬期講習會 一月十五日부터八日間公普校안에서開催

消息

◎淸水太八氏(前楚山郡庶務主任) 退官人事次本報楚山支局來訪

伸寃鼓

問 나무한가지만베어도 곳잡아다가벌금、구류등의처분을나리니 이래서야살것소 (安城樵夫)

答 벌채허가(伐採許可)를마라서베이시오(安城森林主事)

◇鎭興◇

永興郡鎭興市 鎭興釀造所 趙昌元 尹大憲

永興郡鎭坪面輪洞里 金銀銅貨鑛 藤田鑛業株式會社 翰洞里鑛山 出張所 元山府旭町二丁目六番地 電話元山一〇一八番 振替京城九六七九番

鎭興繁榮會 會長 崔錫範 副會長 原參治 總務 趙昌元

永興郡鎭坪面事務所 面長 鄭載容 會計員 金承烈 書記 元皓淵 書記 朴秉璘 書記 金明昊 書記 鄭容淳 技手 李道坤 技手 徐仁植 技手 尹錫喆

永興郡虎島面原平市 金承一本店

永興郡鎭興市 韓弘傑商店

永興郡鎭興市 日用雜貨 煙草小賣 永豊商店 李永祚

永興郡鎭興市 金正坤商店

永興郡鎭坪面新塘里 面協議員 高膺嶽

永興郡鎭坪面坪灘里 金仕勳

永興郡鎭坪面坪灘里 金斗吉

永興郡鎭興市 中央理髮館 趙廷煥

永興郡鎭興市 山本商店

永興郡鎭興市 太坪淸太郎

永興郡虎島面原上里 尹秉東

鎭興釀酒所 新陽出張所 趙曾敎

永興郡憶岐面三岐里 張相弼

永興郡憶岐面新陽市 李國弼

永興郡憶岐面新陽市 永昌商店 金昌五

永興郡憶岐面新陽市 新興木工場 金禧淵

永興郡憶岐面瓦隅里 金瀅樂

永興郡鎭坪面輪洞里 翰興鑛業所

永興郡鎭興市 鎭興醫院 尹明傑

永興郡鎭坪面坪灘里 金奉勳

永興郡鎭興市 鎭興府金組合 組合長 吳基權 理事 李國一

鎭興金融組合 職員一同

永興郡鎭興市 司法代書人 行政代書人 張寬厚

咸南永興鎭興市 米穀商 貿易商 鎭興商會 [illegible]

永興郡憶岐面事務所 職員一同

◇鳥致院◇

永興郡鎭興市 鎭興煙草賣捌所 南相圭

永興郡鎭興市 原參治

鳥致院面協議員 朴之赫

鳥致院公立普通學校 訓導 金鳳順

鳥致院栁町 誠濟醫院 院長 朴東烈

鳥致院吉野町 鳥致院第四區振興會長 李養禧

永興郡鎭興市 趙正允

永興郡鎭坪面 車俊相

永興郡鎭坪面 東昌鑛山

鳥致院市場町 李文基

鳥致院 同仁醫院 院長 [illegible]

(가나다順) 司法代書人 李德浩 鳥致院栁町

司法代書人 河天海 鳥致院本町

司法代書人 韓匡敎 鳥致院栁町

司法代書人 元商轍 鳥致院栁町

◇釜山◇

釜山府大廳町 商業會議所 會頭 香椎源太郎

釜山府九一町七百番地 朝鮮紡織株式會社 電話四〇〇五

釜山城大倉町 丸大護謨工業株式會社 釜山支店 代表取締役 米倉淸三郎

京釜線龜浦向島 龜浦金海間乘合自動車部 主任 金亨七 電話一二番

京釜線龜浦驛前 濟生堂乾材藥房 主任 文炳祚

金海郡大渚面出斗里 [illegible]

東萊郡沙上面長 [illegible]

東萊郡沙上面 張志厦

東萊郡沙上面 金慶善

[illegible]

釜山驛前大廳町 大池忠助

龜浦面事務所 一同

[illegible]

謹賀新年

◇光州◇

南鮮蠶業株式會社創立事務所 光州須奇屋町 電話四二五

湖南産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趙昌俊

協信洋行 光州城底里(驛前) 各種肥料製造販賣商

永信洋行 光州西光山町 全羅南道指定肥料製造販賣會社 主務 李永贊 李承臣

昌榮亭 光州西城町 和洋料理 主 河永敏 電話四一三

太陽醫院 光州須奇屋町 院長 曹柱煥 電話四一六

鄭潤植 光州郡本村面陽山里

鄭淳熙 光州城底里 米穀商

全南自働車運轉士共濟會 光州瑞南里

興産精米所 光州須奇屋町 朴箕永 朴夏駿

職員一同 光州郡本村面事務所

朴魯玼 光州郡河南面長水里 面長

株式會社湖南銀行 全南光州
專務取締役 玄俊鎬
取締役兼支配人 金信鎬
副支配人 李秉欽
調査課長代理兼庶務課長代理 鄭珊讃
支配人代理 沈鎭燮

孫鍾彩 光州鄉社里 喪中欠禮

新光園 光州不老町 朝鮮料理 電話五二六

食堂員一同 全羅南道廳

吳完基 吳丞大 同

吳鍾燮 同郡邑內

光州開業醫師會

光州金曜會

春園寫眞館 光州須奇屋町 梁在業 電話六三〇

職員一同 和順郡廳

鄭洛教 光州楊林里

東亞婦人商會光州支店 光州本町

㊂光州支店 光州須奇屋町

興一商會 光州須奇屋町 電話五四一、六五九、五一六

朴琪柱 光州須奇屋町 喪中欠禮

旅館 光州須奇屋町 淳內 金浩德 外主婦 孫平仁

光山組人力車帳場 光州南門通 電話六二九 四四

新興酒造場 光州須奇屋町 南致豊

致南고무商會 光州須奇屋町 秦致南

田福三 光州須奇屋町 各種木物製造業兼飲食店

李啓寧 光州郡瑞坊面梧峙里

藤田義夫 光州芝山公立普通學校 校長

中山泰市 光州郡本村面協議員 中山酒造場

宮內昌□ 光州郡飛鴉公立普通學校兼飛鴉小學校 校長

金景烈 光州郡飛鴉面事務所 面長

鞠昌烈 光州北城町 朝日旅館

羅新基 光州錦溪里

金河中 光州鄉社里

光陽旅館 光州須奇屋町 電話六二七

世昌堂乾材藥舖 光州須奇屋町 主務 高光□ 醫生 全□□

東亞木工所 光州郡須奇屋町 裝飾、家具製造業 高光實

濟衆院 光州楊林里 電話二九

車載國 光州楊林里

申昶洙 光州瑞南里

尹錫晋 光州院村里

光和고무商會 光州花園町 曹秉□

瑞山洋服店 光州須奇屋町 林炳斗

衛生舍藥房 光州須奇屋町 曹演洙

光山旅館 光州須奇屋町 崔萬魯

光昌酒造場 光州須奇屋町 鄭賢巨

永興洋服店 光州郡須奇屋町 閔千植

一松堂 光州須奇屋町 表具師 朴在天

李必仲 光州北城町 司法代書業

李吉重 光州孝泉面□□里

姜寬鳳 光州北城町 司法代書業

大成商會 光州須奇屋町 綢緞布木商 鄭萬五

光山고무商會 光州須奇屋町 金□實

新昌商會 光州須奇屋町 綢緞布木商 李□新

光州須奇屋町 金銀細工各種裝物商 金□根

全南精米所 光州須奇屋町 金容成 電話一二一

光文館印刷所 光州西光山町 柳相元 電話三六 振替口座京城一二九九〇

昭和自働車部 光州瑞南里 梁台亨 電話一四二

光州人力車組 光州須奇屋町 崔永實 電話二〇一

光城洋靴店 光州北門通 徐漢權

春堂齒科醫院 光州須奇屋町 趙源

三山堂大藥局 光州須奇屋町 劉演相 電話六二

東一商會 光州須奇屋町 電話一二八

瑞興印刷所 光州須奇屋町 李宗大

光河自働部 光州須奇屋町 李□□

宋和植 光州須奇屋町 辯護士 電話五〇五

徐光卨 光州須奇屋町 辯護士 電話二三九

金在千 光州須奇屋町 辯護士 電話六二一

奇世哲 光州須奇屋町

崔善鎭 私立光州普通學校 校主

池昌宣 光州須奇屋町 電話二一三

宋宅會 光州瑞南里

具哲佑 光州城底里

權炳楚 光州城底里

朴夏昌 光州城底里

職員一同 光州郡廳

姜雲燮 光州瑞南里

丸元洋服店 光州北城町 禹元模

和順酒造組合 全南和順邑內 金南鉉

閔泳世 和順郡外南面沙坪里 面長

源昌商會 光州須奇屋町 綢緞布木商

崔永燮 光州郡本村面龍頭里 振興會總務

沈相燁商店 光州須奇屋町 綢緞布木商

壽南藥局 光州瑞南里 藥劑生 全祥洙

平和醫院 和順邑內 醫 申錫浩

大昌商會 光州須奇屋町 綢緞布木商 電話二七

朴喜繁 光州須奇屋町 全光堂齒科專門

平和堂藥房 光州須奇屋町 電話二三六

千榮珍 和順面事務所 面長

姜泰成商店 光州須奇屋町

崔錫祉 光州須奇屋町

金相文 光州須奇屋町

金相鶴 光州須奇屋町

林斗相 光州須奇屋町

奇近燮 光州樓門里

金惟中 光州樓門里

趙根元 光州樓門里

李啓翼 光州樓門里

梁在亨 光州樓門里

崔錫休 光州弓町

李鏞洙 光州郡廳

金容粲 光州錦溪里

原田自動車部 光州花園町 電話二二〇

任永模 光州弓町

錦南旅館 光州錦町 金仙鶴

壹藏寫眞館 光州須奇屋町 李一燁

貫洞旅館 光州城底里 具貞慶 電話六六一

長興旅館 光州須奇屋町 吳桂元 電話二〇五

吉丸商店 光州須奇屋町 ダイヤ醬油、月仙桜酒、吉田製麴、果物、菓子 卸小賣 主 郭淳載 電話二六八

朴晶昱 光州郡廳

◇丹城◇

職員一同 山清郡新安面事務所

姜太守 山清郡二賢面大源寺 住持

金仲官 山清郡二賢面大源寺 會計

崔長律 山清郡二賢面大源寺

吳元澤 山清郡新等面事務所 面長
金龍祚 李道濟 金鍾完 朱燁斗 金然浩 吳敬卓 朴道水 宋洪根

李□□ 山清郡新等面丹溪里

金錫進 山清郡新等面坪地里

山清郡新等面丹溪里 大力 山□□□ 郎石動

權德鳳 山清郡新等面丹溪里

山清郡新等面丹溪里 □□□ 元

金文□ 山清郡□山公立普通學校

金泰萬 慶南山清郡矢川面□□里 綢緞布木、肥料、穀物

工棟瑞 山清郡德山公立普通學校 校長

河又寬 山清郡德山公立普通學校 訓導

姜三俊 山清郡矢川面□□里(德山市場) 綢緞布木

金相彥 山清郡矢川面□□里(德山市場) 米穀、魚物、肥料

山清郡□□面 金萬八 李井五 □□□

權光鉉 山清郡矢川面事務所 面長
李炳基 裵永煥 金基浩 朱基相 姜泰秀 朴桂鶴

曺再煥 山清郡三壯面大浦里 面協議員

渡邊勝一 山清郡三壯面□□□所

林成淳 山清郡三壯面□□里 面協議員

教育會 慶南山清郡

畜産組合 慶南山清郡

李□山 山清郡山林會

梁海南 山清郡生比良面□□里

權龍鎬 山清郡生比良面 面長

鄭鎬德 山清郡新等面丹溪里 學父兄會長 青年會長

李炳圭 山清郡新等面丹溪里 青年會副會長

[illegible] 丹城模範組合 [illegible] 崔東□ [illegible] 金日□ [illegible] 金南□ [illegible] 德山産業組合 [illegible]